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남가주 교계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천지의 집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천지 “OUT”

한국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오픈바이블세미나를 21일 오전 11시에 옛 수정교회(현 가톨릭 성당)에서 개최한 가운데, 남가주 교계에서는 100여명이 모여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반대시위를 열었다.

이날 시위는 남가주 교계 성도들이 모여 기도한 후 집회 장소로 들어오는 입구로 흩어져, 차를 몰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피켓을 들고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집회 장소로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신천지의 문제점을 알려 이들이 발걸음을 돌리도록 했다. 이날 신천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종이었지만 동양인 및 한국인도 보였다. 한인 2세대들이 집회 스태프로 참여해 청중들을 맞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OC교협 회장 엄영민 목사는 “이미 신천지가 OC나 사우스베이 지역 마켓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집회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목회자들이 깨어서 이들이 교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배워야 한다. 문의사항은 OC교협이나 남가주교협에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천지는 벨플라워 지역에 교세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는 “이들이 지하에 있다가 이제 전면으로 나서 주류사회를 포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미 한국교회에서는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고 게시판에 써 붙여 놓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민교회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신천지에서 성경공부를 한 적이 있는 브라이언 씨는 “그곳에서 성경공부를 갖게 할수록 이상한 가르침으로 흐르는 것을 느끼고 빠져 나왔다”며 “또 그들은 ‘신천지’에 대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장소 주차장에는 절반이 비어 청중 수는 500~1000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맹 기자

동성애 의무교육 저지 ‘실패’

동성애 단체들의 이의 제기로 재검토한 결과 ‘충격적 대반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 의무교육을 저지하기 위해 낸 PRE(Parental Right in Education) 법안이 재검토 끝에 주민투표 상정에 실패했다. 남가주 교계 관계자들은 얼마전 주민투표 상정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나, 동성애 단체들의 이의 제기로 재검토하자 결과가 뒤집혔다. PRE 법안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동성애 의무교육법안인 SB48을 저지하는 데에 고배를 마셨던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낸 것이다.

남가주 교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경악과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남가주교협 회장 변영의 목사는 20일 오전 LA한인타운 호텔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재검토를 받게 돼 유권자 등록이 되지 않은 서명자들의 수많은 서명들과, 규격이 맞지 않는 청원서, 그리고 이름과 주소 등이 일치하지 않는 서명들이 발견돼 최종 결과가 바뀌게 됐다”고 했다.

PRE 법안을 발의한 Christian Coalition of California 사라 김 한인대표에 따르면, 통과된 청원서들이 재검토

를 받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다. 청원서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로 상징할 숫자를 보내는 ROV(register of vote) 오피스 중 한 곳에서 문제를 제기해, 전체 청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져 이같은 결과가 빚어졌다.

남가주교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처음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주 방점에 따라 샘플 500명의 서명 또는 전체 서명의 3% 또는 그 이상을 뽑아서 검토한 결과 95%가 유효하다는 판정을 받고, 나머지 서명들은 숫자만 계산해 186표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상징받는 기쁨을 누렸다. 다만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가 ROV 오피스에 주는 서명 마감일이 남아있는 경우,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간혹 통과여부가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 동안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 PRE는 지난 4월 1차 마감일부터 6월 2차 마감일인 두 달의 충분한 기간을 통해 미리 계산된 서명숫자가 ROV 오피스를 통해 조금 일찍 State 오피스에 보고돼 상정을 받았었는데,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극히 드문 변경이 남은 마감일 며칠

사이에 일어나서 결과가 바뀌게 된 것이라 한다”고 결과가 뒤집히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에 대해 남가주교협 동성애교육 반대서명운동 위원장 박성규 목사는 “186표의 아쉬운 차이에 대해 동성애 단체가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된 결과 최종 3000표가 무효처리가 됐다”면서 “그렇지만 많은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STOP SB48본부에서 새로운 발의안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방어진에서 공격전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가주교협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동성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핵심 방침으로 기독교학교를 세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교협은 지난 17일 기독교학교 설립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변영의 목사는 “기독교학교 설립을 위해 모든 기독교단체와 교회가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에 마감된 Class Act도 상정에 실패했다. 이 역시 동성애 의무교육 저지를 위해 발의됐다.

토마스 맹 기자

KAPC LA노회 아름다운 연합

지난 12일~14일까지 샌버나디노의 창대교회에서 연합 여름성경학교(이하 VBS)가 열렸다. ‘핍피언을 찾아 떠나는 대모험’이라는 주제의 이 행사에는 창대교회(이준준 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김성일 목사), 새일교회(정병노 목사), 한미장로교회(이운영 목사), 한마음제자교회(곽부환 목사)가 참여하고 50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했다.

창대교회 권철근 부목사는 “교단은 다르지만 VBS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 나와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이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이 연합해 마련한 이 행사는 교계에 좋은 본보기가 됐다. 주최측에서는 “내년에는 KAPC LA노회 차원에서 함께 행사를 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빅터 박 기자

라이프 섹션

13면 북새통

- » 신간소개 | 어느 로마귀족의 죽음, 예수의 첫수업 상산수훈 외
- » 강진웅의 책 읽기 | 상상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 ‘영적 물입’

16면 헬스 & 라이프 날 물로 보지마 ‘웰빙의 비결 여기에’

17면 커버스토리 도넛에 철학이 있다, 유쾌한 역척녀 나주옥 목사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AX 문제 전문
자산통계 및 은행구좌 차입해결, 밀린세금 삭감,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변호사, CPAs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Audit, Levies/Liens, Sales Tax, Payroll Tax
TAX HELP TEAM (213) 248-0221
3250 Wilshire Blvd. Ste. 900, Los Angeles, CA 9001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양성필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일시: 2012년 8월 5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본당
오셔서 주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찬양예배
2012 독일궤른한빛찬양대 특별 연주
일시: 2012년 7월 29일 (주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본당

Back to School 특별기도회
일시: 2012년 8월 6일 (월) - 8월 18일 (토)
시간: 월-금 (오후 8:00 - 9:15) 토 (오전 6:00 - 7:00)
장소: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본당

예배 안내	<p>주일예배 1부[오전7:45] 2부[오전10:00] 3부[오전11:45] 어린이[오전10:00] 중고등부[오전10:00] 대학정년부[오후1:30] 영어(EM)[오후12:30] 세백기도회 화-금[오전5:30] 토[오전6:00] / 금요기도회 [오후8:00]</p>
--------------	--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담임목사 양성필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EL 626 912 6600 FAX 626 912 0303 www.hanarochurch.org

동성애 교육 저지 좌절 “기독교학교가 대안”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 “하버드대도 성경공부 모임으로 시작”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 교육을 반대하는 Class Act와 동성애 교육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PRE(Parental Right in Education), 이 두 발의안 주민투표 상정이 무산됐다. 이러한 가운데 교계 지도자들은 동성애 교육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은 ‘기독교학교 설립’이라고 입을 모았다.

20일 오전에 LA한인타운 한 호텔에서 교계 지도자들은 두 발의안 주민투표 상정 좌절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제도상 결함’이 있는 공립학교에 더 이상 자녀들의 교육을 맡기는 것은 어

려울 것 같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변영의 목사(남가주교협 회장), 송정명 목사(미기총 직전회장),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강순영 목사(JAMA 부대표), 박세현 목사(남가주교협 총무)가 참석했다.

이에 남가주교협은 지난 17일 기독교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위원장 변영의 목사, 집행위원장 박성규 목사, 고문 송정명 목사, 박희민 목사(성시화미주대표), 김준근 장로(JAMA 대표) 등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이들은 “공립학교에 암암리에 들어오는 동성애 교육을 이제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 기독교사립학교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학교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주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300명 규모의 교회에서 초등학교를, 500명 규모의 교회에서 중등학교를, 1000명 규모의 교회에서 대학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정과 운동장 등이 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전문가들의 견해다.

송정명 목사는 “LA에 있는 뉴커버넌트 아카데미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며 “남가주에서 먼저 시도하면 타

주로도 뻗어 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기독교 학교 설립 운동이 미질 과정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강순영 목사는 “하버드대학교 성경공부 모임으로 시작했으며, 목사가 아니면 교수를 시키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세워졌다”며 “요즘 공립학교에서는 크리스천들이 맥을 잃게 만들고, 심지어 캘리포니아 한 공립학교에서는 레즈비언 가정에 사는 아이에게 간증을 시키는가 하면, 동성간의 연애를 인권 측면으로 접근해 아이들에게 토의를 시킨다. 한 동성애 반대 운동가는 노란 버스를 태워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사탄의 소굴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라고 오늘날 공립학교가 지닌 비기독교적인 방향에 대해

서 지적했다. 이날 모인 교계 지도자들은 “앞으로 목회자 세미나와 교단장 모임 등을 통해 기독교학교 설립 운동을 확산시킬 예정”이라며 “유대인 커뮤니티가 스스로 정규학교를, 그리고 에프터스쿨을 운영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고 했다.

변영의 목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1,350개의 한인교회가 기독교학교를 설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 우리의 자녀들을 동성애 교육의 피해로부터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일에 모든 기독교 단체와 교회가 협력해 기도하며 추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마스 맹 기자



제4차 어린이꿈팡 프로젝트 참석을 위해 LA 공항에 도착한 흠사모 자녀들. 이들은 그동안의 아픔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미래의 꿈을 설계하는 25일간의 일정을 보낼 것이다.

‘꿈팡’에 입성한 고국의 샐별들

내달 12일까지 홈스테이 하며 미국 문화 체험

한국의 흠사모 자녀들 11명이 샐레임을 갖고 미국 땅에 19일 입성했다. 목회자 아버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 후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은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25일간 시마밸리에서 열리는 ‘제4차 어린이꿈팡 프로젝트’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오전에 LA공항에 도착했다.

2003년부터 시작해 올해 4회째인 어린이꿈팡은 꿈팡비전센터(정한나 단장)가 주최하고 남가주광명교회(정우성 목사)가 후원한다. 이들은 25일간의 꿈팡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8월 12일 남가주 광명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크리스천 미국인 가정들이 학생 한 명씩을 맡아 홈스테이를 제공하면서 3주간 양부모 역할을 하게 되며, 학생들은 성별과 나이가 같은 미국인 어린이와 방을 함께 쓰면서 영어와 미국문화를 배우고 제

함하게 된다. 또 크리스천스쿨에서 미국인 교사로부터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교육을 받게 된다. 또 미국의 관광지와 유원지도 관광할 예정이다.

정 단장은 “학생들이 꿈팡을 통해 감동을 받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며 “실어증에 걸린 학생이 신앙을 회복하고 명문대에 진학하고, 또 어떤 학생은 과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거나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정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적, 시간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어 올해 어린이꿈팡은 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며 “앞으로 채워져야 할 재정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채워주시길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후원 문의: 213-500-2186

토마스 맹 기자

한 여름밤의 음악회 ‘박인수 교수와 음악친구들’

나침반교회,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열린 음악회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라는 표어로 지난 13년동안 부에나카 지역 복음화에 힘써 왔던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가 7월 초 브레아(City of Brea)에 새 예배당을 마련했다. 이후 브레아 지역의 주민들에게 열린 교회로 다가가기 위해 지난 22일 저녁 7시 ‘박인수 교수와 음악친구들’을 초청해 한 여름밤의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630여 석의 자리가 부족해 의자를 더 마련할 정도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고, 박 교수의 투박하지만 재미있는 진행과 파워풀한 공연이 관객들의 마음에 하나의 추억을 남겼다.

음악회는 민경엽 담임목사의 인사로 시작해 성가곡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외국 및 아리아를 선보였고, 한국가곡과 민요 중 진도아리랑과 새타령 뿐 아니라 관소리까지 소화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다. 청중들은 노래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로 화답했다.

박 교수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진행으로 무대와 청중들과의 간격을 좁혔다. 특히 박 교수는 실수한 제자들에게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는 엄격한 모습을 보인 반면, 민요와 관소리를 부를 때는 제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청중들에게 웃음을 안겨 주기도 했다.

박인수 교수와 음악친구들은 박 교수와 그의 제자들인 테너 김성준(백석예술대학 교수), 이성민(영남대 겸임교수), 박성훈(남가주동신교회 지회장), 신동원(오페라단의 주역), 왕승원(동아방송대 출강), 베이스 장진영(ANC온누리교회 3부 온누리성가대 지휘), 소프라노 서정화(성바실성당 한인성가대 지휘), 피아니스트 박성은(한세대학교 박사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음악회는 찬송가 ‘나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마쳤고, 민경엽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 됐다. 한편, 교회측은 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할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 562-691-0691 토마스 맹 기자



나침반교회가 브레아에 새 예배당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교회로 다가가기 위해 박인수 교수와 음악친구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열었다.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형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 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항암으로만 암치료를 유명한 한동규 박사님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품으로 녹아나오지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미주 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입학생/편입생모집

미주 총신대학교 모집

대학 학과 및 학위과정

- 전문화과정- 여고역학과(2년제) : 교회 사역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여성 사명자(Diploma 과정)
- 학사과정- 신학과, 선교학과, 음악과, 기독교 교육과(4년제) : 고등학교 졸업자

신학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과 및 학위과정

- 목회신학 석사(M.Div.) - 3년 6학기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교 소지자로 세례교인
- 일반대학원 - 2년 4학기 : 신학전공, 선교학 전공: M.Div, 소지자 M.A (신교학 전공, 기독교 교육전공) M.C.M (교회 음악 전공)
- 박사과정 - 2년 4학기 : D.Min.(목회경력 3년 이상의 M.Div. 소지자) Th.D.(Th.M.소지자) D.C.Music (M.A.소지자)

총장 김근수 박사

미주 총신대학교는 지금까지 34회에 걸쳐 7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순수 교역자 양성을 목표로 개혁주의 신학대학으로서 재외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의 인준신학교입니다. 초대 조해수 총장의 뒤를 이어 지난 30년이 넘는 동안 한국총신대학교와 한국성서대학교, 칼빈대학교에서 교수하신 개혁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김근수 박사께서 제2대 총장으로 취임하여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이어가며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이사장 김관도 박사

총장 김근수 박사 Keun Soo Kim ■ 대학: 미국 남가주 신학대학(Southern California Bible College & Seminary, B.A.) / 한국 총신대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Chong Shin Theological Seminary in Seoul, Th. M. / 미국 칼빈 신학대학원 신학석사-Calvin Theological Seminary in Grand Rapids, Th. M. / 영국 웨일즈 대학교 대학원 불학박사-Univ. of Wales Graduate School in UK, Ph. D. /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신학 석사- York Univ. Divinity School, Research Fellow / 한국 아브라함비전연구소(ABM) 대표이사 ■ 대학: 한국 교회의원 현 한일교회 담임,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삼일대학교 중 대학원장 부총장 역임, 현 개혁신학회 회장

본교는 주정부에 등록된 대학입니다. 입학과 편입생을 위한 각종 장학혜택 (총장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총회장학금, 한울장학금, 영화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타주 또는 타국에서도 Internet이나 통신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원서교부 및 접수 중에 있으며, 합격여부는 개인 면접 후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213-487-1010)

미주총신대학교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 #300, L.A., CA 90010
TEL: 213,487,1010 FAX: 213,487,3303
E-MAIL: info@chongshinusa.edu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소중한 장서를 기증 바랍니다. 학교에 기증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 School of Theology ■ School of Mission ■ School of Christian Education ■ School of Church Music

169개국 한인 선교사들, 축제의 장 열다

“격동하는 지구촌, 긴박한 땅 끝 선교”

KWMC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시카고 헛튼대학에서 성대히 개막



한인세계선교대회에 2천5백여 명의 한인 기독교인들이 참석해 한국 기독교와 한인 세계 선교에 관한 비전을 모았다.

제 7차 한인세계선교대회(사무총장 고석희 목사, 이하 KWMC)가 23일(월) 오후 6시 헛튼대학에서 그 막을 올렸다. ‘격동하는 지구촌, 긴박한 땅 끝 선교’를 주제로 2천5백여 한인선교사와 한인 기독교인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총 5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금세기 최고 설교가로 꼽히는 존 파이퍼, YWAM 대표 로렌 커닝햄 목사를 비롯한 유명 한인 목회자 다수가 강사로 참여한다.

세계선교사대회, 선교사자녀대회를 포함, GKYM 청년축제, GKYM Youth 축제, 어린이선교대회까지 총 5개의 대회가 동시에 혹은 연달아 개최된 것은 KWMC 사상 최초로, 세대 분문 총 5천여명이 동원됐다.

개회예배는 한인선교사들이 자신이 파송된 169개국의 깃발과 국가 이름을 쓴 팻말을 들고,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을 본 고석희 사무총장은 “10만 기도용사를 모집해 이 예배가 진행되는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며 “이 곳을 가득 메우신 것은 기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다.

한국을 축복하신 하나님

예배는 고석희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만우 공동대회장의 개회선언, 차현회 명예대회장의 선교사 환영사, 최광규 선교사(KWMC 대표회장)의 선교사 담례사, 이승중 목사(공동대회장)의 차세대 및

MK(선교사 자녀) 환영사, 이상진 장로의 개회기도, 남가주권사합창단의 찬양으로 이어졌다.

설교는 빌리그래함센터 현 소장이자 선교사들의 입국을 위해 직접 서명을 하는 론 엘리스 목사가 맡았다. 엘리스 목사는 ‘성공적 선교를 위한 필수요건은 무엇인가’라는 설교를 통해 “성공적인 사역은 지식도, 교육도, 기도생활도, 선행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닌 인내”라고 강조했다. 사역을 ‘마라톤’으로 비유한 그는 “낙심하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라며 “하나님과의 개인적 경건의 시간을 늘리고, 진정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두며, 성령 충만할 것”을 당부했다.

축사한 존 파이퍼 목사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큰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전세계에서 한국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다. 큰 축복이 있는 곳에는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며 “시편 67편(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를 예로 들며 선교의 책임을 되새겨주시기도 했다.

올해 103세가 된 방지일 목사(명예대회장)는 축사하면서 “자기 경험은 아닌 온전히 말씀에만 붙들려 그리스도를 메시야라 전했던 바울을 닮아라.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하면 그것은 나의 사업이 되는 것이다. 온전히 주님 뜻에 붙잡혀 주님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쇠퇴하는 한국 기독교, 위기 의식 고조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 속 쇠퇴하는 한국 기독교의 영향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설교한 론 엘리스 목사는 “슬픈 소식이 하나 있다. 한국 기독교는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지만, 21세기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경각심을 심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썩부리는 비유에서 3번째 땅인 가시덤불, 즉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진 것을 들었다. 그는 “한국의 삶의 지표가 나이지리아 서방 국가들의 기독교 쇠퇴의 길을 밟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첫째날 저녁 집회를 인도한 오정현 목사(한국 사랑의교회)도 “일본이 사색하

는 교회, 미국이 찬양하는 교회를 가졌다면 한국은 고난을 이기는 교회로 수식되어 왔다”며 “그러나 요즘 한국교회는 고난을 이기는 교회의 야성을 잃어버렸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삭을 내어드린 아브라함의 여호와와의 신앙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 “개인 구원과 사회 책임의 기독교인의 의무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동시에 이행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잃어버린 청년 세대... GKYM을 지켜봐 달라

이어서 이동열 선교사(GKYM 사무총장)는 “불과 120년 전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 땅에 선교의 불을 붙여주신 하나님과 많은 선교사,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하지만 우리는 지금 청년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이 선교사는 “1990년대 한국 교회 내 청년은 급감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20대 청년 중 3.2%가 기독교인이고, 교회 안에는 청년이 전체 회중의 8%밖에 차지하지 않는 심각한 현상이 벌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20년 후에는 청년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 2세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GKYM이 함께 걸겠다”며 1세대의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우리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자

한국 기독교 ‘위기’에 대한 논의 속에도 희망의 꽃은 피어났다.

강승삼 목사(KWMA 회장)는 “1988년 제 1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열렸을 때 전세계 한인 선교사의 수는 500여명이었다. 당시 우리는 2000년까지 1만명 선교사 파송을 위해 통성 기도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한 미국인 친구가 물었다. ‘당신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고. 기도제목은 듣더니 ‘그것이 가능할까?(Would it be possible?)’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2000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1만명 이상의 한국 선교사를 보내주셨다”고 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에 참석자들은 목소리 높여 ‘아멘’으로 응답했다.

이번 대회에는 남미, 북미, 아시아, 아시아 전략지역 및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호주, 유럽을 아우르는 전세계 각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각 지역의 선교 동향을 나누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선택강좌 시간을 통해서는 선교역사 및 동향/ 기독교인의 생활 / 한인 세계선교 및 북한 선교, 한인디아스포라 선교 동력화 전략 / 타종교 타문화 선교 등의 주제로 구체적인 토론과 강의가 펼쳐진다.

앞서 열린 한인세계선교사대회에 참석한 유인자 선교사(러시아 북시베리아 지역 선교, 합신)는 “러시아 지역은 자꾸 한인 선교사들이 줄어들어 작년만 해도 20가정이 모이던 지역 한인 선교사 모임에 최근에는 6명만 모이고 있다”면서 “외로운 선교 현장에서 한인 선교사님들과의 교제가 많이 부족한데, 전세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사역의 새 힘을 얻고 간다”고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해 간증하기도 했다.

현재 전세계 169개국에 2만3,331명 한인 선교사가 파송돼 있으며, 그 수는 1979년 93명에서 매년 현재처럼 늘어나 선교사 2만명 시대, 선교사 파송국 2위의 자리로 올려두었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 ‘기독교의 위기’를 맞은 이 때, 여전히 확장형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인 선교사들의 전략 논의가 더욱 기대된다.

권나라 기자



이번 대회의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치기 전 기념촬영에 임했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빠른 자동차 보험 알선

“진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 전화 877-580-2424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미트와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약도 Bus 2071 Lajolla Fairfax ORT 메트로 Wilshire

다민족에 대한 비전 가져야

김영빈 목사, 세계비전교회 담임 취임



김재연 목사(우)와 후임 김영빈 목사(좌)

노스리지에 위치한 세계비전교회가 제 2대 담임 김영빈 목사 취임감사예배를 22일 오후 5시에 드렸다. 김영빈 목사는 스페니시, 영어, 한국어 등 3개 국어가 능통한 1.5세 사역자다.

이날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합시다'(사 54:1-3)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1대 담임 김재연 목사는 "선교지향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지경을 넓히는 축복이 이 교회에 있길 바란다"며 "또한 지역사회에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자"고 말했다.

김영빈 목사는 취임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주의 종이 되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앞을 향해 달려감으로 예수님을 높여 드리고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자"고 말했다.

동양선교회 박형은 목사는 축사에서 "김영빈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큰 목회자"라며 "목사님과 힘을 합쳐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

길 축복한다"고 했다.

이날 예배는 사회 김재연 목사, 대표 기도 남성수 목사(오렌지카운티한인장로교회), 권면사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 설교 김재연 목사, 취임사 김영빈 목사, 축사 심태섭 목사(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 총회장), 축사 Pastor Frank nuno(Nuevo Amanecer), 축사 박형은 목사, 봉헌기도 박승규 목사(동부사랑교회), 축도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김영빈 목사는 중학교 2학년 때 남미 아르헨티나로 가족이민을 온 1.5세로, 현지에서 중교를 다니던 중 다시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왔다. 그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뉴욕의 Nyack College에서 신학과 청소년사역을 전공한 후 미동부 필라델피아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을 마쳤다.

이후 미동부지역에서 주로 청소년 및 EM사역을 담당했고, 선교목사로 남가주 사랑의교회와 베델한인교회에서 부목사를 역임했다.

토마스 맹 기자

치노힐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

크로스로드교회(전길성 목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토요 연합 찬양예배를 통해서 치노힐 지역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지난 14일 저녁 7시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담임)를 감사로 초청해 찬양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그리고 매달 둘째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집회가 열린다. 8월 11일엔 문병용 목사(유니온교회), 9월 8일엔 최혁 목사(사랑의빛선교회)가 초청된다.

이번 집회는 윤주형 목사가 이끄는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고, 신승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다함께 기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집회에 앞서 전길성 목사는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웃교회와 연합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 하는 데

에 사용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승훈 목사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내가 빛진 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 목사는 "우리는 빛진 자들이다. 하나님께, 믿음의 선진들에게, 믿음의 동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빛진 자다"고 역설했고, "이 빛을 갠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에서 빛진 것도 갠야 문제없이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빛진 것을 갠지 않고 그냥 살려하는가?"라고 반문했으며, "전도가 그 빛을 갠 길이다"고 답했다.

이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달라졌다. 우리도 성령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도 성령충만 받아서 전도를 통해 별과 같이 빛나게 되길 바란다"며 설교를 마쳤다.

빅터 박 기자



발표자 조용중 박사

서론

미국은 이민문화와 복합문화 사회다. 이민교회는 미국 사회 자체를 선교지로 볼 수 있다. 이민사회의 교회들은 지역 교회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선교의 사명을 지닌 교회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북미주 한인교회들은 선교지에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선교지인 미국에 끼치는 영향이 극히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테이블에서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어떻게 다문화 다민족 이민사회인 미국에서 선교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셔널 서베이 결과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본론

1. 서베이 향상 방안: 설문조사 항목 중 한인교회와 다른 교회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질문들이 많았다. 하지만 다민족교회의 현실과 분포도가 제대로 파악되지는 못했다. (인구조사 결과는 일반적인 것만 실제적이지 못하다.)
- 대안: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필요요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이민교회의 1세 목회자들의 언어와 문화적인 한계성을 뛰어넘어 다문화에 관

제 4회) 다문화 다민족 테이블 참가자: 조용중, 호성기, 이은무, 정운명, 정병철

한 의식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타민족들과 연합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1세 목회자 대부분이 문화적으로 한국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어 평신도들이 다민족에 갖는 관심보다 비교적 적은 관심을 이들에게 쏟기 때문이다.

- 대안: 이민교회 목회자들을 선교사의 사명을 지닌 자로 보고 1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문화 이해 교육과 언어훈련, 즉, 선교훈련을 해야 한다.
- 3. 이민교회로서 주류사회와 다른 소수민족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 대안: 주류사회 및 소수민족들과의 연결점을 찾는 행사나 세미나 등을 열어 한인교회 지도자들의 인식을 깨우고 전교인들을 훈련시키며 운동을 장기화하고 지속화해야 한다.
- 다민족과의 연합을 위해서는 자기 색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와 서로가 지닌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은 개교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로 인해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었다. 이민교회의 목회자들은 교회의 본질이 선교와 영혼구원인 것을 기억하고 다민족 영혼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이민사회에 산재한 무임 목사들을 훈련시켜 이들을 다민족선교사로 양성해 활용하도록 권유한다.
- 타문화 이해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 모든 교회들이 "지금 여기에(Here and Now)"의 정신을 회복해 해외선교뿐 아니라 미주의 다민족 선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2세들에게 타문화를 가르쳐 이들 자신의 문화권을 초월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 한인교회들이 다민족 및 다국적 선교 학교를 기획해 다민족 대상 선교학교 프

로그를 제공한다

- 다문화 사역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예로 타민족 교회들과 연합 단기선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한인교회가 주류사회와 타민족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영성과 선교의 열정을 기르도록 한다. (예: 새벽기도 초청과 선교동원 등) 더이상 기존 전통을 고집하는 이민교회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하나님나라의 관점을 지닌,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희생과 기득권층의 의식구조의 변화, 성경적 교회론의 회복, 본질의 회복이 절실히 요구된다.

결론

이 설문조사 결과를 미국주류 학자들에게 전달해 그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는 회의도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진행되어야 한다. 다양성 가운데 조화와 일치를 가져다 줄 다민족 콘서트 같은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 한인교회들이 의도적으로 다민족 친근정책을 펼쳐야 한다.
- 이벤트보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인 선교 지향의 교회로 전환해야 한다.
-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및 타문화이해교육이 절실하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평신도 훈련원을 시작해야 한다.
- 영어가 준비된 2세들에게 선교지향적인 참여를 독려하라.
- 일회적 행사가 운동(Movement)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비전이 공유되어야 하며 훈련을 통해 전 교인이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 훈련프로그램에는 어린이도 포함되어야 한다.

<끝>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감기약 처방
한약으로 한방에 감기 푼
증상별 처방/천연 한약재
3-7일분 처방 가능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여행자 보험 / 건강보험 / 교통사고 (스마트폰 검색가능)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수강생 모집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17기, 2기 생 교육을 무사히 완료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명으로 시작한 의료 선교사 육성 사역은 축복 가운데 3기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본 재단에서만 시행하는 교육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손 하나만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치료사를 육성하며 수료가 끝난 의료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불모지에서 치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하고 계십니다.

모집안내

신청자격: **하나님을 영접하신분으로 선교의 사명이 투철하신 남녀 성도분**

모집대상: 1. 목회자 또는 선교사님 (해외 파송 희망 선교사)

2. 선교의 사명을 가진 평신도로서 의료 선교사가 되고자 하시는분

3. 수기 치료술을 배워 단기 선교나 의료 봉사를 원하시는분

모집인원: LA 지역 남녀 10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제한 함)

Orange County 지역: 남녀 10명

교육기간: 총 20주 (매주 2회 2시간 교육)

접수마감: 2012년 7월 30일 (월요일)

개강일자: 2012년 8월 6일 (화요일)

교육장소: LA지역 - 2836 8th St. #106, Los Angeles

Orange County - 8218 B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접수처: 세계의료선교사 육성 재단
213-381-7273 / 213-605-2928

교육강사: 박승부 장로 (Dr. Charlie Park) 수기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국제 대체의학 전문대 학장

교육내용 (근육 통증 전문 치료술)

1. 근육 교정학: 통증을 전문치료하는 의술.
2. 체형 교정학: 변형된 체형을 교정하는 의술.
3. 척추 교정학: 비튼 척추를 만들어 신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의술
4. 영양 물리학: 식품의 음양과 인체의 음양 (자연식의 원리)

교육의 특징

수기치료의료선교사 교육은 약품이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만을 사용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로서 한의학, 카이로 프랙틱, 근육전문 치료학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교육을 시행하는 유일한 선교법인입니다.

수료후 특전

1. 수료증 및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자격증 수여.
2. 해외 파송 선교사 후원하여 드립니다.

선교 법인 세계 의료선교사 육성 재단 2836 8th St. Los Angeles, CA 90005 문의전화 : 213-381-7273 / 213-605-2928 / 562-547-8653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번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주한인목사회, 남가주 총회예지부, 벨렐장로교회, 엘에이사랑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일보, 한술중합보험, 크리스찬헬드,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변호사그룹, 백보환의원, Allstar, Precision, 최진욱변호사, 재미남가주황해도도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사랑교회
☎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251-8930**
주소 :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I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SBOE,EDD,FTB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 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은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미주 예심 전도법 일일 컨퍼런스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성도로 살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 일일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2년 7월 31일(화) 오후 1시-5시
- 장소 : 남가주빛내리교회(박용덕 목사 시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714) 401-9874
- 회비 : 무료(간식 제공)
- 참가대상 : 담임목사, 전도사, 사모, 사역자 및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

1.전도에 부담이 없어지고 전도가 쉬워집니다.
2.부부가 함께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3.여러 분이 팀을 이루어 오셔도 좋습니다.

주최: 미주 예심 전도 대학

목회자 동정

박모세 목사(살롬장애인선교회)



박모세 목사는 지난 8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정영희 목사)에서 '휠체어사랑이'라는 주제로 박모세 목사 독창회를 성황리에 치렀다.

또한, 지난 12일 저녁 6시 30분에는 살롬장애인센터에서 한류비전콘서트가 있었다. 9월 15일에는 장애인가족들과 함께 하는 추계야유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성우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이성우 목사는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6번째 고국체험학교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OCYC 학생들을 인솔해 전국을 다니며 공연을 한다.

내년 1, 2월에 있을 한국청소년들을 위한 미주체험학교와 교회성장연구소 미주세미나 설의를 준비하고 내달 16일 귀국한다.

문병용 목사(유니온교회)



문병용 목사는 지난달 동부교역자협의회(회장 김민섭 목사) 주최로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에서 개최한 교회연합 찬양기도회 대표기도로 참여했다.

지난 8일 Hualapai 인디언 단기선교를 다녀왔고, 지난 22일 코람테오한인교회(구 병용 목사)가 치도홀스에 참례예배를 가졌는데 대표기도로 참여했다.

교회 단신

글로벌선교교회 한여름밤의 은혜집회

글로벌선교교회(김지성 목사) 한여름밤의 은혜집회가 '오직 은혜 앞으로'라는 주제로 8월 한달 내내 매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된다. 3일부터 5일까지는 박신일 목사(벤투버 그레이스한인교회), 10일부터 12일까지는 김용훈 목사(위싱턴 열린문장로교회), 17일부터 19일까지는 이진수 목사(산호세 뉴비전교회), 23일부터 26일까지는 성현경 목사(뉴저지 가스펠렐로십교회) 순이다.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한글학교 졸업예배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엄영민 목사)가 지난 22일 한글학교 졸업예배를 드렸다. 해마다 장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오는 29일 2부 예배시간(10시)에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진다.

남가주빌라델비아교회 여름성경학교

남가주빌라델비아교회(임승호 목사)에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여름성경학교가 있을 예정이다. 9월 8일 새신자 환영회를 계획하고 있다.

뉴라이프선교교회 터닝포인트 집회 피스메이커 세미나

뉴라이프선교교회(박영배 목사)는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김요셉 목사(수원 원천침례교회, 김장환 목사 아들)를 초청해 터닝포인트 집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접수 중이다. 문의: 714-526-6562

남가주사랑의교회 극빈가정 어린이 초청 여름캠프

남가주사랑의교회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킹덤드림센터 근처의 매그놀리아교육구의 극빈가정 어린이 40여명을 초청해 여름캠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백동조 목사(목포 사랑의교회)를 초청해 성령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영화 Evan Almighty 상영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오는 28일 저녁 7시 40분 친교실에서 기독교영화 감상회 시간을 통해 Evan Almighty를 상영한다. 내달 4일부터 성경통독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의: 714-882-0404

로렘장로교회 페루 단기선교

로렘장로교회(배명환 목사)는 지난 22일 선교회 대항 탁구대회를 개최했고, 노숙수 선교사를 초청해 서부노회 선교집회를 북음대학교에서 가졌다. 내달 12일부터 18일까지 페루 단기선교를 다녀올 예정이다.

미주평안교회 애리조나 피마 인디언 마을 단기선교

미주평안교회(송정명 목사) 청년부들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애리조나 피마 인디언 마을로 단기선교를 다녀왔고, 26일부터 28일까지 여름성경학교를 연다.

또감사선교교회 사도행전 바이블스터디

또감사선교교회(최경욱 목사)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9주 과정으로 사도행전으로 브런치바이블스터디를 진행 중이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엔 셀장 예배가 있다.

나성소망교회 신설 장로 초청 은혜간증집회

나성소망교회(김재울 목사)에서 <7전 8기의 은혜>의 저자 신설 장로 초청 은혜간증집회를 7월 29일 오전 11시 개최한다. 주소: 4063 Ingraham st. Los Angeles, CA 90005
문의: 213-380-0258 / 213-550-7377

갈보리선교교회 신약성서 성경대학, 유

방암 무료 건강검진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신약성서에 대해서 성경대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금요기도회 시간에는 황중선 장로를 초청해 간증집회를 개최했고, 오는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YWCA 주최로 유방암 무료 건강검진이 있을 예정이다.

토렌스조은교회 성경공부

토렌스조은교회(김바울 목사)는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성경공부를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예배시간에 베트남 하노이와 Youth Power Plant SF선교팀 파송식을 가졌다.

나성영락교회 영락성경대학

나성영락교회는 지난 16일 오후 6시 이민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 15일부터 매주 주일 오전 8시 20분부터 3강좌씩 레위기 완전정복,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성경개관, 주님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를 진행하는 영락성경대학이 시작했다.

세계선교교회 9월 창립기념 부흥회 및 권사 임직식

세계선교교회(최운형 목사)는 지난 19일까지 멕시코 카말루(Camalu)지역으로 단기선교를 가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고 집을 건축하고 의료선교를 했다. 오는 9월 창립기념을 맞아 부흥회와 권사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다. 20년 전부터 어르신들에게 2박 3일동안 효도관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10월 첫째주에 효도관광이 있을 예정이다.

새한교회 공동의회, 교회학교 졸업식

새한교회(정세훈 목사)는 내달 12일 권사 7명을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다. 오는 29일에는 교회학교 졸업식을 갖는다. 정리=빅터 박 기자

저소득층 자녀 섬기는 사우스베이방주교실



방주교실에는 영어, 수학은 물론, 바이올린, 태권도 등 다양한 과목이 마련된다.

사우스베이 말씀교회가 주관하는 제1차 사우스베이 방주교실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사우스베이 방주교실은 여름방학 동안 사우스베이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들을 섬기는 프로그램이다. 여름방학이 시작하면 여름 캠프도 붓물처럼 쏟아지지만 경제적으로인 이유로 캠프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방치되기 쉽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사우스베이 방주교실은 시작되었다. 방주교실은 6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이 진행되며, 현재 42명의 학생들이 등록하여, 4명의 풀타임 교사, 10명의 자원봉사자가 섬기고 있다.

오전에는 다음 학년도의 영어와 수학을 공부하며, 오후에는 바이올린, 리코더, 합창, 애니메이션, 종이접기, 만들기, 주산, 속셈, 태권도, 농구, 물놀이, 야이스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사우스베이 방주교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우스베이 말씀교회 담임목사인 김강인 목사는 "오늘의 건강한 어린이들이 내일의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확신하고 모든 스태프들과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1407 S. Crenshaw Blvd. #101 Torrance, CA90501, 310-961-0394 빅터 박 기자

미주베델교회 13주년 기념감사예배 드려

미주베델교회(정요한 목사)는 22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13주년 기념예배를 최학선 목사를 초청하여 드렸다. 최목사는 빌3:12-14을 주제로 '당신은 인생의 로드맵이 있습니까?'란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더불어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 목사는 연세대 치과대학 DDS, USC Dental School GPR, 치과외사로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사역과 의료사역을 병행하고 있다. 웰드미션 의료선교 대사로 수고하는 등 한인커뮤니티의 숨은 봉사자로 잘 알려진 바 있다.



최학선 목사

Dealer No. 6265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13-453-5900
 714-743-1000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 장 23 절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헤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www.familyauto.us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213-747-5900
714-743-1000

1230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기독교회관 건립 기금 모금 합창제



LA 지역을 대표하는 합창단들이 목사회관 건립을 위해 성가대합창제에 참여했다.

800여 명 참석해 큰 성황 이뤄

남가주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가 한미기독교회관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성가대합창제를 22일 오후 7시에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했다.

합창제는 전중재 교수가 음악 총감독으로 연출했으며, 총 9팀이 참여한 가운데 은혜한인교회 성가대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남가주사랑의교회 성가대가 '아름다운 세상 주신 주께', '성령이여 오소서'를, 웨스트힐장로교회 아이노스 여성중

창단이 '왕복없는 하늘 길', '놀라운 주의 사랑'을, 극동성가단이 '찬양과 기도', '그 이름 찬양, 찬양해'를, 레위남성성가단이 '그가', '가라 모세'를, LA남성성교회 합창단이 '평화의 기도', '성모여 다 함께'를, 이화 Volcal Ensemble and Soloist가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lleluija'를, 코랄레움선교합창단이 '선한 여호와께 감사해', 'Swing Low, Sweet Chariot'를, California Master Chorale이 '그가', 'Elijah Rock'를 열창했다.

김영대 목사는 "앞으로 많은 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도로 기독교회관 건립이 이뤄지길 간절히 소원한다"며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목사회는 연말에 평신도지도자와 1.5세와 2세를 대상으로 회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펀드레이징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김영대 목사는 오는 8월에 세미나 감사 초빙과 한국 교계 지도자들과의 관계 협력을 위해 한국에 다녀오다는 계획이다.

토마스 맹 기자

열세돌 맞은 울타리선교회 찬양으로 감사예배 드려



울타리선교회가 창립기념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다.

올해로 창립 13주년을 맞은 울타리선교회(The Well Mission·대표 나주옥 목사)가 지난 22일 오후 미주평안교회에서 '찬양과 함께 감사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한 해의 출발을 알렸다.

나주옥 목사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함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있어 잘 견뎌왔다"며 "앞으로도 물처럼 부드럽게, 흙처럼 순수하게, 공기처럼 꼭 필요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미주평안교회 살림중창단, 로스앤젤레스 챔버과

이어, 남가주장로성가단, CTS챔버앙상블 등이 무대를 장식했고, 한기형 목사(미주기독교감리회연합회 증경감독)와 이상훈 목사(해외한인장로회 서노회장)가 축사했다. 축사는 전예인 목사(거리의교회)가 맡았다.

울타리선교회는 현재 예배터, 나눔터, 도움터, 배움터의 4가지 역할로 나눠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예배터는 4.29 폭동이 일어났던 웨스턴 길가(4259 S. Western Ave. LA)에, 나눔터는 다운타운(6가+Towne)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정하나 기자

TOP MEDIA
교회학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www.ptsa.edu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 신학대학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다섯 비전의 날개로
웅비(雄飛)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세계를 섬기고 변화시킬 귀한 인재를 초청합니다.

1 다섯 가지 비전 1

1. 다문화사회 및 세계 선교현장에 맞는 양질의 신학교육
2. 경건에 깊이 뿌리내린 맑고 역동적인 영성교육
3. 섬김의 글로벌 리더십교육
4. 급변하는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읽어내는 인문학적 교양교육
5. 실제적인 이종언어교육

1 특 전

- 본교는 미주지역 한인 최대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총회 직영 신학교로 졸업 후 본교단 목사 안수 후 미국이나 선교지에서 목회 가능.
- 본교 졸업 후 한국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 목사고시 후 목사 안수 가능. 본 교단에서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이명 가능.
- 본교 졸업 후 본교단에서 목사 안수 후, 미국장로교회 (PCUSA) 소속 교회 이명 가능.
- 본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BPPE)로부터 인준받았고, 성서대학협회 (ABHE) 정회원 학교로서 북미주 (캐나다 포함)에 산재한 200여 개 신학대학으로 전학 및 진학가능.
- 본교는 신학교협회(ATS)로부터 준회원으로 인준받았고, 정회원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음.
- 본교는 여러 장학제도가 있음.
(성적, 근로,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 형제자매, 부부, 지정 등) .

1 입학

- 가을학기 접수 마감일 : 2012년 8월 17일(금)
- 가을학기 개강일 : 2012년 8월 27일(월)
(여름계절학기 : 2012년 6월 4일~8월 17일, 수시등록 가능)
- 모집 : 대학부(신학과-고등학교 졸업자), 신학대학원(대학 졸업자)
- 구비서류 등 입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를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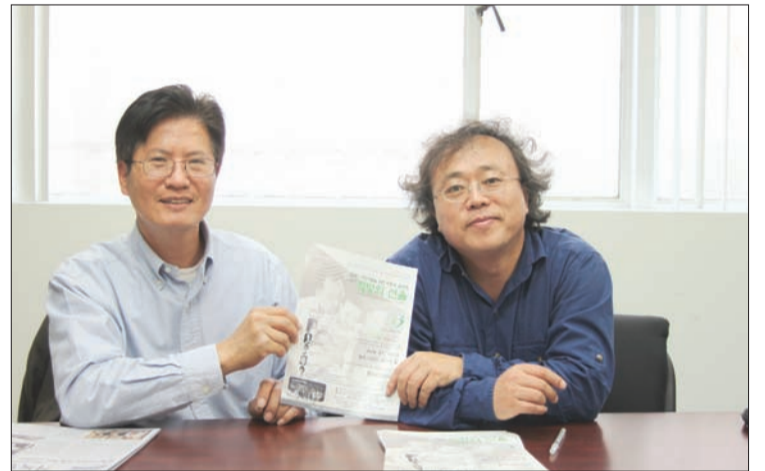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SEVIS I-20 발행

이사장 김인식 목사 총장 이상명 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e-mail: office@ptsa.edu
www.ptsa.edu

입양아 돕기에 아름다운 화음 모은다



한국입양홍보회가 LA 코리아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자선 음악회를 개최한다.

한국입양홍보회(MPAK·회장 스티브 모리스·사진 왼쪽)가 43년의 전통을 지닌 LA코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LAKPO·상임지휘자 윤임상)와 함께 오는 7월 31일 '베토벤의 밤: 입양아 돕기 자선 음악회'를 개최한다.

행사비용을 제외한 음악회 수익금과 후원금은 MPAK 등 입양 관련 단체에 기부돼 한인 가정 입양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그간 고아들의 대변인 역할을 감당해 온 스티브 모리스 씨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입양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달하고, 단 한 명의 고아라도 가정을 찾아주는 게 소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디 한인 커뮤니티가 고아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선물하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모리스 씨의 노력으로 미전역에 걸쳐 수백여 한인 입양가정이 생겼다. 올해로 설립 13년을 맞이한 MPAK은 현재 미주에 5개, 한국에 28개 지부를 두고 있다. 그동안 수천여 명의 고아들에게 가정을 선물해 온 이 단체는 우리 사회에 입양의 가치를 바르게 전달하고 입양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번 음악회에는 USC 피아노 정교수인 노빈 크리거와 바이올린 부교수인 헨리 그로니어, 피아노 교수인 소니아 황, 켈스테이트 롱비치 첼로 교수인 전중승 등이 출연한다. 특히 베토벤 교향곡 제 9번을 연주 및 합창하며 환희와 인류애를 전하게 된다. 음악회는 7월 31일 오후 7시 30분 LA다운타운 윌트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20~100불이다.

다음은 윤임상 LAKPO 상임지휘자(사진 오른쪽)가 이번 음악회에 앞서 본지에 보내온 글이다.

"베토벤의 삶"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고뇌, 슬픔, 역경이다. 그러나 그의 음악을 듣고 싶다면 어느새 어둠과 무거움에서 벗어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소망과 기쁨, 희망이 벅차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변화의 원동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28살에 귀가 점점 어두어지기 시작한 베토벤. 그의 나이 서른이 되어서는

거의 들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그래서 죽기를 작정하고 하일리겐 슈타트 지방에 내려가 유서를 쓰기 시작한다. 그러던 와중에 그는 멀리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얼굴에 완연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 흥겹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장면을 본 베토벤은 마음을 바꾸어 새로운 소망을 갖고 그의 생이 마감되기 전까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세계를 음악을 표현하고 싶은 야심으로 작곡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 27년에 걸쳐 '불후의 명작'들을 이 세상에 남기게 된 것이다.

그 중 베토벤의 교향곡 9번 4악장에 실린 쉼터의 시 '환희의 송가'는 온 인류를 가슴에 품고 하나가 되자는 인류애를 나타낸다. 이 곡을 통해 내면 세계뿐 아니라 외적인 세계의 모습까지도 표현할 수 있었다고 그는 이야기한다. 이 음악이야말로 고뇌와 역경, 실의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소망과 기쁨, 그리고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음악이다.

그래서 독일의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 푸르트뵐러는 "이 폐허가 된 독일을, 피폐한 독일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는 베토벤"이라며 이 음악을 연주했다. 1989년 동·서독이 통일된 후 번스타인에 의해 연주된 곡이 바로 이 곡이다. 또한 올 초 일본 관동대지진 1주년을 추모하며 1만명이 이 곡을 연주하면서 일본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

이같이 베토벤의 음악엔 '힘'이 있다. 이 '힘'은 그가 고난을 통해 얻게 된 위대한 선물이기이다. 고뇌와 역경 가운데서 용기와 힘을 주고 참 희망의 빛을 줄 수 있는 것 말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엔 아직도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있다. 베토벤의 음악이 희망의 선율로 연주돼 이들에게 메아리쳐 들리길 원한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반목, 분쟁과 대립을 넘어서서 모두가 하나 되어 새로운 소망을 품는 계기가 되며,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LA 모든 교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음악이 되었으면 한다.

정하나 기자

‘WCC 총회 철회 위한 100만인 서명’ 출범

"이웃이 내 집에 독성물질 보낸다면 항의해야"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 총회의 개최 철회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이 부산 교계의 주도하에 출범했다.

예수한국WCC대책위원회(회장: 박성기 목사, 브니엘신학대학교 이사장)는 20일 'WCC 부산총회 철회 촉구 및 100만인 서명운동 출범예배'를 부산 연산동 브니엘신학대학교 강당에서 드렸다. 대책위는 100만 인의 서명이 모이는 즉시 이를 WCC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인 대책위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WCC 부산총회가 한국교회 전체의 동의가 아닌 소수의 지도자들의 주도로 유치된 것이며, 앞으로 한국교회에 미치고 올 악영향이 명백하다는 점을 들며, 철회를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정관술 목사(고신증경총회장)는 "WCC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기독교의 본질과 정체성에서 한참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WCC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마호메트, 석가, 다른 이방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다고 하는 것이 WCC의 실체"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

이라는 성경 말씀을 바로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절대 WCC에 찬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경철 교수(사무총장, 고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특강 순서에서는 모든 강연자들이 입을 모아 WCC의 종교다원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총회 철회 촉구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김향주 교수(부회장, 대신대학원대학교 교수)는 "WCC는 다른 종교와의 '연합(unity)'을 위해서 교회의 '순수성(purity)' 즉, 신앙고백을 포기하라고 한다. 우리(보수교회)를 향해 교만하다고 비판하는 이들이지만 기독교의 신앙고백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행위가 아닌가"라며 이를 "교회과교주의"라고까지 비판했다.

최덕성 교수(전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는 "WCC의 유해성은 WCC의 노선을 따라간 유럽과 북미, 호주 교회들의 쇠락을 보면 알 수 있다"며 "WCC 부산총회 개최 후 모든 종교가 다 같다는 풍토가 조성되면 이는 영적인 '핵' 방사능 분진과 같이 마귀 역사와 싸워야 할 한국 교회의 근력을 빼내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최덕성 교수는 저서 「신학총틀: 기독교와 세계교회협의회」에서도 WCC 신학의 문제성과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최 교수는 또 "이웃의 일은 서로 도



WCC 제10차 총회의 부산 개최 철회를 촉구하는 인사들이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한 자리에 모였다.

야야 하지만, 이웃에서 내 집에 독성물질을 날려보낸다면 이에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WCC 부산총회 철회는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특강에서는 이기형 목사(신민교회 담임)가 "WCC 신학의 모든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주가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인데 이는 성경에 대한 불신"이라며 "WCC 부산총회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유명 목회자들이 이때까지 전해 온 설교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개탄했다.

현재 목회 중인 그는 특히 "목사인 나도 WCC에 대해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그 심각성을 몰랐는데 하물며 목사들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어땠겠는가"라며 성도들이 무방비 상태로 WCC의 종교다원주의에 노출될 것이 우려된다

고 말했다.

이에 이기형 목사는 최근 자신의 교회가 속한 나사렛성결회 교단 측에 WCC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과, 소속 교회들에 WCC의 유해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교회 명의로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철회촉구 선언문 낭독과 기도회로 끝을 맺었다.

대책위가 앞서 지난달에 채택한 'WCC 부산총회 철회 촉구 선언문'은 WCC의 반기독교적 신학 10가지와 부산총회가 가져올 독성 5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즉, WCC가 포용주의와 다원주의, 신앙무차별주의를 조장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며, 역사적·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한국교회의 생명력을 앗아가고 교회들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선언문은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대책위는 WCC 부산총회 철회 촉구 및 100만인 서명운동 집회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며, 가까운 오는 29일 울산 집회를 앞두고 있다. 또한 WCC의 유해성을 알리는 그룹 스타디오 기도회도 각지를 돌며 진행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외에도 전국 규모의 대형집회와 중앙지와 지방지에 총회 철회 촉구와 100만인 서명운동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며, 이를 위한 재정 후원이 필요로 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브니엘신학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용지를 다운 받아 작성된 서명지를 브니엘신학대학교로 우송하면 된다.

손현정 기자

한기총, 교회 보호 위한 기구 조직 결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19일 제23-8차 임원회의 제23-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정관 개정을 심의하는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번 정관 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 정관에 대해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해오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표회장 임기를 기존 '회기'에 한하던 것을 삭제해 2년 단임제와 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비상근 부총무 약간명을 둘 수 있도록 해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증경회장은 당연직 임원이 될 수 있게 했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증감 및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실행위에서는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고,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는 8월 9일(목) 오후 2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열기로 했다. 기타안건에서는 직전대표회장인 김자연 목사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단체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를 조직하자"고 동의해 가결됐다.

앞서 경과/사업보고에서는 '6.25 국민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것,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건은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대통령 면담을 신청기로 한 것, 회원교단 교회들을 위한 동판 제작 시안이 제작된 것, 후임 담임목사 청빙과 '한국교회 지도자 음해보도'와 한국교회연합에 대해 각각 태도를 밝힌 것, 한기총 임원단이 WEA(세계복음연맹) 본부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 정기총회에 방문해 협력사항을 논의한 것 등이 보고됐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특히 종자연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대통령 직속 기

구이고 현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인데도, 그곳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 대표와 대선 후보들을 만나 한국교회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명예회장 이만신 목사로 하기로 결의했다.

홍 대표회장은 또 "이번에 WEA 뉴욕 본부에 방문해서 그곳 실무진들이 2014년 WEA 총회를 사상 최대의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을 브리핑 받았다"며 "한국에서의 준비가 아직 다소 미흡한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WEA 본부의 실무진들은 11월 첫 주 한국을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을 실시할 계획이다.

질서확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도 목사)의 보고에서는 한기총에서 이단 규정된 최상경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임태론에 동조 혹은 두둔한 이들에 대해 '이단옹호자'로 규정하기로 한 것을 그대로 받았다.

신규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교단들 중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국제연합(총회장 이강봉 목사 /교회 수 250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최영을 목사 /교회 수 231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총신(총회장 김중근 목사 /교회 수 208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장신(총회장 정수남 목사 /교회 수 275개) 이상 4개 교단의 가입을 허락하기로 가결한 실사위원회(위원장 윤종관 목사)의 보고 중, 국제연합측의 경우 이의가 제기돼 대표회장에게 일임하여 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류재광 기자

10명 중 3명만 '창조론' 믿는다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믿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3과 16일 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13명에게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인간은 다른 생물 중에서 진화했다'(진화론)는 응답(45%)이 '인간은 신의 의해 창조됐다'(창조론)는 응답(32%)보다 많았다. '창조론'과 '진화론' 중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23%였다.

지난 2001년 같은 조사에서는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됐다'는 견해(36%)가 '인간은 다른 종으로부터 진화했다'(29%)보다 많아 창조론이 우세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진화론을 믿는 응답자는 늘어난 반면, 창조론을 믿는 응답자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들은 인류의 기원으로 '창조론'을 꼽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개신교 신자(133명)의 75%, 천주교 신자(65명)의 42%가 '인간이 신에 의해 창조됐다'고 응답해 천주교보다는 개신교가 창조론을 더 믿고 있었다.

반면, '인간이 다른 생물 중에서 진화

했다'는 견해, 즉 진화론을 믿는 응답자의 비율(개신교 14%, 천주교 31%)은 천주교가 더 많았다. 불교 신자(131명 중 46%)와 종교가 없는 사람(278명 중 63%) 중에서는 '진화론'이 우세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진화론' 51%, '창조론' 26%로 '진화론'을 꼽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여성은 '창조론' 37%, '진화론' 40%로 두 견해가 비슷했다. 한국갤럽측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 기독교 신자가 많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이별로는 저연령일수록 진화론을 믿는 경우가 많아 20대는 63%, 30대는 55%, 40대는 48%가 '진화론'을 지지했지만 60세 이상에선 '창조론'(30%)을 믿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50대에선 '창조론'(38%)과 '진화론'(41%)이 비등했다.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 진화론의 근거로 시조새 내용이 '계속 실려야 한다'는 주장은 42%로 나타나 '삭제돼야 한다'(19%)는 주장보다 우세했다.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39%였다.

김진영 기자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재\$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213.327.4710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빨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단, 컬러만 하시면 \$30)

매직스트레이트 \$100 up (제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효능 찬사 앵콜 세일!!

Made in USA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7월 31일까지)

프로모션 B (7월 31일까지)

프로모션 C (7월 31일까지)

오리지널 7병+ 알파 1병 = 8병 (260불)

오리지널 4병+ 알파 3병 = 7병 (270불)

오리지널 2병+ 알파 4병 = 6병 (260불)

100불 (오리지널 8병도 100불)

100불

100불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불/ea + tax Kost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50불/ea + tax Kost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각종 위장병에 특히 좋은 알파 구연산!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비디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막힌 체험사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해 주세요.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아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장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기간을 다 돌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약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내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응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BOOK



通

신간 소개

책으로 새로운 통하는 세상



어느 로마귀족의 죽음

브루스 롱네커 지음 | 북돋는 사람 | 304페이지 | 23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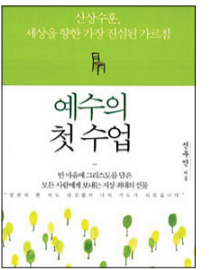
초대교회와 로마제국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문학적 상상을 가미해 흥미롭게 재조명한 픽션(faction). 요한계시록 2장에 언급된 순교자 안디바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나누는 열네 번의 편지 교류를 통해, 로마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던 어느 로마귀족이 자기희생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소설이 가진 매력과 학문적 명확성을 두루 갖춘 작품으로 인정받는 이 책은, 현대인들에게 신약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다.



예수의 첫수업 '산상수훈'

신우인 지음 | 포에마 | 288페이지 | 20불

당신이 정의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산상수훈을 신앙생활의 출발선이자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수업으로 새롭게 해석한 강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영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야 할 종교성은 무엇인지, '팔복'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가르쳐 주는 명쾌한 강의로 삶에서 살아 있는 거룩함을 배운다. 행하고, 가르치고, 치료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로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의 천국을 지어줄 영적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다.



강한 용사

한명철 지음 | 두란노 | 232페이지 | 16,67불

"인생은 무용(dancing)이 아니라 레슬링(wrestling)이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한 말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운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느라 지칠 때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더 본질적이고 거친 싸움에 임해야 한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 왔던 싸움이다. 곧 빛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 간에 벌이는 영적 전쟁이다. 현세에서 내세까지 이어질 이 싸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싸움에 탁월한 용사가 되어야 한다. 『강한 용사』는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매일 적을 격파하고 능수능란하게 싸우는 필승 전략과 지혜를 나누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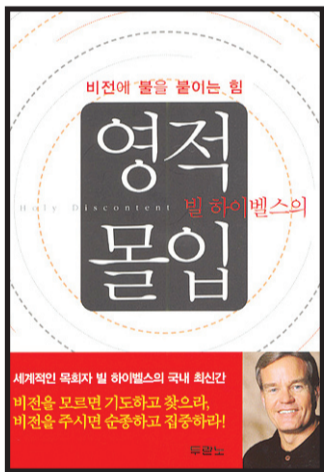
강진웅의 책 읽기

상상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 '영적 몰입'

사실 이 책은 몰입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거룩한 불만족(Holy Discontent)'에 관한 책이다. 거룩한 불만족이란 단순히 불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자장이 부족하다는 데 불만이 있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데 불만이 있고, 목사님의 설교가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들다는 데 불만이 있다. 이 시대의 상황,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의 형편을 뜻하는 것인데, 그런 거룩하지 못한 불만을 가진 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물론 목회자라고 거룩한 불만족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 빨리 부흥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왜 이민교회 성도들은 훈련 받기를 게을리할까? 왜 할 일 많은 교회에 젊은 일꾼들이 모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설교에 성도들이 감동받지 않을까? 목회자들 역시 불만스러운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누구나 느낄 만한 사회적, 신앙적 불만을 승화시켜 '거룩한 불만족'을 연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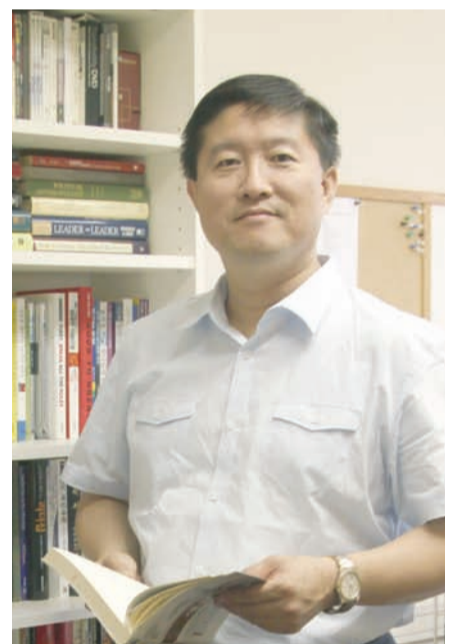
빌 하이벨스의 영적 몰입 - 비전에 불을 붙이는 힘, 빌 하이벨스 지음 | 카렌 채 옮김 | 168페이지 | 두란노

로 삼아 하나님의 일에 몰입하는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가치 천재적인 목회자라 할 만하다. 월로우크릭교회의 방대한 사역은 사례를

받는 전문사역자들의 사역으로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잘 알기에 그는, 사례를 받지 않고도 열정과 몰입으로 헌신할 수 있는 수많은 평신도 자원봉사자들을 세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모세가 애굽에서 고통 당하는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걸러지고 승화되지 않았다면 폭력적인 불만의 표출이나 좌절감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가 가졌던 거룩한 불만족을 에너지 삼아 '절대감자' 바로 왕(王)과도 담대히 대적할 수 있게 하셨다. 또한 원자폭탄이 아닌, 원자력 발전소 같이 생산적인 에너지를 40년 동안 발산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이민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성도들을 열정과 몰입의 동역자로 세우는 지혜가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다고 믿는다.

목회자로서 책을 읽다보면 새로운 지식을 주는 책,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생생한 감동과 예화를 제공하는 책도 있지만, 이렇게 사역에 적용할



갈보리침묵교회 강진웅 목사

통찰력을 제공하는 책들에서 가장 고마움을 느낀다. 불만은 있으나 열정이 통제되지 않아서 교회에 유익한 일꾼으로 세워지지 못한 채 스스로 불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비전의 불을 붙이고, 정확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책이 되리라고 믿는다.

당분은 1/2로 낮추고 건강은 2배로 명품저당도 크림꿀

아이다호 크림허니 캘리포니아 딜러십 획득

당뇨 위장병 성인병, 설당대용으로 설탕이 몸에 나쁘다는 건 모두 알고계신 사실 천혜의 청정지역 아이다호 고산지 클로버와 알팔파에서 추출한 아생건강꿀 Cox's Honey California Exclusive Distributor LA, OC지역 무료배달

귀국선물로 최고의 선물

도·소매 사업자와 세일즈 하실분 모집

Jwon Trading Inc. 213-487-1116 2846 W. 8th St. #203 LA, CA 90005

HYUNDAE BIDET™ 현대비데 미주총판

Non Electric, Electric & Hybrid Type

현대비데 (냉,온수)와 설치비+Tax 포함 \$119.99

1년 워런티

- 비데기능은 오직 세정
- 물탱크 없이 직수로 사용
- 위생적인 비데
- 한국제품의 우수성

- ① 여성전용 노즐과 노즐 자동세척기능
- ②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만 영구적 사용
- ③ 오도염, 방광염, 냉대하 및 자궁질환, 향문 질환 완화와 예방

타주 및 지역 대리점 모집

썩담배, 금연초~!! 100% 니코틴 프리

“기관지에 썩뎀 효과”

아직도 담배때문에 걱정하신가요? 100% 썩을 원료로 만들어 몸에 좋은 담배 대용품! 금연과 더불어 기관지 특성제거와 썩뎀효과까지! LA, OC지역 무료배달

10갑/1보루 50% Sale \$30

슈퍼파워 남자의 힘! 여자의 행복!

• 발기부전, 조루증, 전립선

• 신속하고 5일 간의 지속적인 효능

• 복용 후 1시간 이내 100% 효과

• All Natural

• 근본적 성기능 개선

• 1회 1일 만족한 효과

LA, OC지역 무료배달(2box 이상)

도매 하실 분과 OEM 생산 문의 213-505-3355

분열의 힘 vs 연합의 힘

여름 행사와 휴가로 바쁜 남가주 교계에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가 수정교회에서 대형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였다.

신천지는 그동안 심심찮게 물의를 일으켜왔고 최근 들어 남가주에서 부쩍 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언젠가 한 집사님이 마켓에서 전도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기특해서 칭찬하셨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어느 교단의 무슨 교회에서 하는 성경공부냐고 묻자 말씀을 흐뭇하다고 한다. 나중에 이 젊은이들이 바로 신천지의 사람들인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고 한다.

또 얼마 전에는 마켓을 다녀오신 다른 집사님이 신천지에서 나누어 준 홍보전단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전단에는 신천지의 교회가 참 진리라고 양심선언을 했다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사진이 칼라화보로 실려 있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천지가 예전에는 도둑고양이처럼 슬금슬금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던 전략에서 이제 좀 더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긴 해도 신천지 교주가 미국에 와서 수정교회에서 대형집회를 계획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주류 기독교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방송과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연하게 광고를 했다는 사실에는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알고 보니 신천지는 이곳 수정교회만이 아니라 이미 유럽과 뉴욕에서 대형집회를 하기도 했다. 이제는 집회의 대상도 이전의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아닌 유럽과 미국의 주류사회 젊은이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는 느낌이다. 또 이들의 인터넷 광고를 보면 한두 번의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그룹이나 개인 성경공부로 끌어들이는 신천지의 교리를 주입하려는 계획도 보인다. 언제부터 이단들의 수법이 이렇게 대담하고 공격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주의적 교회와 목회자들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 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의 미혹에 넘어갈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하다. 다행히 깨어 있는 신문과 방송들과 교회 연합모임에서 성도들에게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홍보를 시작한 것이 고맙기 그지없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은 물론 남가주 일원에 있는 모든 교회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신천지의 미혹에 대해 경고하고 선량한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이 들어가는 곳에는 크고 작은 분열과 혼돈, 갈등이 있었고 교회나 개인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한국에는 교회 입구에 신천지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놓은 곳까지 생길 정도라니 그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굳건히 하나로 뭉쳐야 한다. 분열의 힘보다 훨씬 강한 연합의 힘으로 이단의 도전을 물리쳐야만 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요일 2:18-19)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컸어요!



손인식 목사
베델한인교회

시간은 100명 가까운 영어권 인턴들과 1세 목사님들, 성도들이 7개 그룹으로 나뉘어 40명 이상의 의원 사무실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우리 젊은 인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고온 정성을 쏟는지 감동되다 못해 눈물이 땀이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도 예쁘고 자랑스러워서 의원회관 복도를 걸으며 한 사람씩 붙잡고 누구든 아이들이며 딸들인지를 물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힘차게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며 멋진 예의와 유창한 영어들을 사용하며 의원 사무실 직원들과 대화하고 의원들 앞에서도 설득력 있게 접근하는지 정말 감탄이 나왔습니다.

문득 생각해 보니 다들 처음 베델한인교회에 왔을 때 아기들이었거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렸던 아이들이 어느새 저렇게 성장하여 당당한 미국시민의 역할과 크리스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조지아에서 달려와 참가했던 리사라고 하는 미국부인은 우리 미국사람들도 이렇게 의 사당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데 너희는 동족 탈북자들을 구하기 위해 당당한 의사당을 취조고 다니니 참으로 놀랍다는 감탄을 거듭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우리 자녀들이 어느새 성장하여 이 나라를 위해 멋지게 헌신하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 한평생의 감동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틀림없이 내년에는 더 물려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워싱턴DC 햇불대회는 벌써 4년째로 접어들었는데 보통은 뒤로 갈수록 시들어지는 것에 비해 오히려 이번 햇불대회는 가장 대규모의 집회였습니다. 우선 햇불대회의 중심이 되는 젊은 인턴들이 작년보다 숫자가 두 배로 늘었고 1세 어른들, 워싱턴DC 지역의 성도들도 많이 참여해주었습니다. CBS의 “60 Minutes” 프로그램에서 2명의 카메라 기자들이 나와 다른 미디어 그룹들과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연방 의사당 앞뜰에서 집회를 열 때는 뜻밖에 10명이나 되는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그 바쁜 회기 중에 나와서 성의껏 연설하며 북한의 해방과 탈북자들의 복송반대를 위해 KCC 사역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최정원 솔리스트가 부르는 미국 국가, Amazing Grace 등이 울려 퍼질 때는 지나가던 백인들도 몰려와 감탄할 정도였고 그 사실이 지역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원합니다

자녀는 나이에 따라 아버지께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십 대 이전의 자녀는 아빠 말은 다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우리 아빠가 그랬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 대가 되면서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이 틀릴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말이 다 맞지 않기도 하지만, 사춘기이다 보니 아버지의 말씀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십 대가 되면 아버지는 자기들보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자녀가 대학에 가고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접하다 보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못 보내는 아버지,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아버지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하지요. 어떤 아버지는 집에 전화했는데 아들이 받아서, 어려워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끊었습니다.

자녀가 삼십 대가 되면 아버지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모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월을 먼저 살아온, 자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말은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십 대, 이십 대에 방황했던 것을 후회하고 아버



양성필 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지를 생각하고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사십 대가 되면 아버지 말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계적인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인 동의를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마음 속으로부터 존경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오십 대가 되면 아버지께 묻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든지 먼저 아버지와 상의합니다.

효(孝)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출세, 입신양명도 부모에게 효라고

하지요. 그러나 효 중의 최고는 ‘양지(養志)’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효 중의 효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자녀는 먼저 부모님께 뜻을 여쭙습니다. 오십대가 되면 자녀들도 세상 지식과 지혜에 능통하게 됨에도 먼저 부모님께 묻습니다. 별 쓸데없는 일들조차도 묻습니다.

육칠십 대가 되면 대부분 부모님이 천국 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옆에 계시지만 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철이 든다는 것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자가 조금 배고팠을 때는 돼지의 쥐엄 열매를 찾았다. 정말 배고팠을 때는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 명언이지요. 우리가 조금 배고프면 이런 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헤맬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원하십니까? 선물을 원하십니까?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선물을 받고 싶어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를 구합니다.

천기(天氣)를 읽는 자가 사는 법

두꺼비는 지진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한다고 합니다. 2008년 쓰촨 성 지진 때 이미 수십만 마리가 이동을 시작해 그 도시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뱀은 120Km 밖의 지진까지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에게도 어느 동물 못지 않은 ‘감지시스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리라, 남풍이 불어오면 더울 것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위험들을 알아채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대한 감지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은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멋대로 사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인 줄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 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의지나 판단’을 사

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 선생들에게 넘겨주고 살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모르는 척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꼭 현재의 우리 모습 같습니다. ‘시대적 징조’들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고, 비신앙적이고, 반인륜적인 일들이 ‘그때’를 더욱 앞당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려 오는 양심의 소리, 들려 오는 신앙의 소리, 들려 오는 복음의 소리를 세상의 권력과 유행과 부와 명예를 탐하는 자들의 소리로 대체하려 합니다.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아무 것도 가릴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때를 예비하며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내일’이 될 지 모릅니다.



손기성 목사
은혜장로교회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원장 | 류재규
경산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WATER health & life



날, 물로 보지마

웰빙의 핵심은 물에 있다



“누구는 웬 호들갑이나 하면서
물맛이 뭐 다 그렇지 하겠지만
집마다 맛이 다른 게 앞마당에
파놓은 깊고깊은 우물이더라
그래도 물맛을 제대로 못 찾았다면
예배당에 한 번 가봐라
입구에서부터 잔 건네주면서
물 따라주는데 그 맛이 또 별미더라”

-시 물맛 中-

물(水)은 신비하다. 하얀 천을 드리운 듯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산이 제 아무리 높아봤자 물없이 푸르진 못하고, 또록또록 한 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본디 물 한 잔에 울고, 물 한 잔에 웃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던가. 시루 속같이 찌물꾸는 여름. 찜뚝뚝위에 지치고 성난 하루의 목마름도 얼음 동동 띄운 냉수 한 잔에 날려 버리자. “여보, 물 한 잔 갖다주요.”
자고로 물맛이 좋아야 음식 맛도 좋다. 시인 김중제는 물맛을 이렇게 정의했다. “따지고 보면 잔 소금기의 바닷물 싫어서 제 태어난 계곡으로 되돌아오는 연어나 들녘에 내린 간밤의 빗물에 붙속 돌아난 붓꽃 같은 것들도 물맛을 운몽으로 깨워진 거더라/ 생(生)에서기쁨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물맛 제

대로 아는 것이더라.”
물은 매우 중요하다. 이 세상의 4분의 3이 산소와 수소의 결합체인 물로 뒤덮여 있다. 인체의 70퍼센트도 물이 차지한다. 자고로 건강을 논한다면 물 마시는 습관부터 착착히 따져봐야 한다. 땀보다 제발 원샷하지 마라. 물이라고 우습게 보다 체할라.
일단 입에 넣고 씹어서 천천히 목구멍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 여기서 이 씹는 동작으로 물의 온도를 체온과 비슷하게 만드는 동시에 산소를 몸 속에 받아들여기도 한다. 잘 보라. 당신은 바쁘다는 핑계로 목구멍에 쏟아붓는 타입은 아닌지. 전문가들은 한 컵의 물을 마실 때 한두 모금씩 씹어먹듯 마시고 그 간격을 5분 내지 10분 정도 두고 마시는 것이 비결이라고 조언한다.
목구멍으로 넘어온 물은 식도를 타고 위, 소장, 대장을 거쳐 우리 몸에 흡수된다. 그 물은 눈물과 피, 그리고 침이 되어 돌아다닌다. 수천 킬로미터를 돌고 도는 과정에서 각 장기의 작용을 원활하

게 하기도 한다.
▷입=마신 물이 목으로 내려갈 때는 구강 내 미생물이나 세균을 끌고 간다.
▷목과 식도=물은 식도 점막에 수분을 공급해서 연동운동이 잘 되도록 돕는다.
▷위=위액을 어느 정도 희석시킨다. 위장 점막이 손상돼 쓰린 속에는 수분 섭취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소장과 대장=마신 물의 80퍼센트는 소장에서 흡수돼 정맥을 지나 혈액으로 옮겨진다.
▷혈액·피부·호흡기=혈액은 전신 세포에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한 뒤, 세포의 노폐물을 싣고 돌아온다. 돌아온 물은 신장으로 흘러가서 소변이 돼 배출된다. 피부 세포에 도달한 물은 노폐물과 함께 땀으로 배출된다. 호흡기로 간 물은 기관지 내 먼지를 청소하고, 기관지 수분은 수증기로 증발된다.
마시는 양은 어느 정도면 될까. 답은 ‘배출량’에 달려 있다. 몸 밖으로 나가는 분량만큼 물로 수분

을 보충하면 된다. 성인의 하루 수분 배출량은 3.1리터 정도다. 대소변으로 1.6리터, 땀·호흡·피부로 각각 0.5리터씩 빠져 나간다. 그리고 성인이라면 음식을 통해 하루 평균 1~1.5리터의 수분을 섭취한다. 재활용(세포 대사 중에 생긴 물) 수분이 0.1리터 정도이므로, 나머지 1.4~2리터의 물을 마셔서 보충해 주면 되는 셈이다. 바꿔 말하면, 하루 7~8잔 정도가 적당량이다.
“유리컵에 양전히 담겨 있는 물은 하얀 이물 드러내고 깔깔땀었지. 우리의 밥상머리에서 목마름을 축여주는 물아, 오늘 아침은 누구네 수도꼭지에서 또 그렇게 통쾌하게 쏟아지느냐.” -오순택의 ‘물을 마시며’ 中
물, 몸에 이로운 줄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당장에 이 녀석 한 모금 들이키자. 맹그랑, 살아있는 물이 나를 보고 배시시 웃는다.
정한나 기자

프로 바이온의 바이온텍 이온수기는

물 맛이 깨끗합니다

잘못된 이온수기물의 상식 **양카리 이온수기의 물맛이 밍밍하고, 찜찜하고 우물 물맛이라구요?**
아니에요 필터의 차이가 물맛을 좌우합니다.
프로 바이온의 바이온텍 이온수기는 **퀄리티가 높은 필터링으로 물맛이 깨끗하고 통달합니다.**

BTM 501 T

- 일시불 구입시 판매가 \$2,500 + tax (\$소비자가 2999 특별 할인 \$500) : 필터 3세트(\$495 상당 3년분) 일시불 또는 3회 분납시 적용
- 무이자 할부 판매 12개월, 소비자가 \$2999 + tax : 필터 3세트(\$495 상당 3년분)
- 무이자 할부 판매 24개월, 소비자가 \$2999 + tax

3년간 전해조 청소 Free, 3년간 A/S Free, 이사 이전설치 1회 Free 입니다.

BTM 102G

소비자가 (순도 99.99% 백금 전극판 5장) : \$2500 + tax
일시불 구입시 \$700 cash back - \$1799 + tax (필터 1 set + Free 전해조 청소 및 A/S 3년)
3회 분납시 \$700 cash back - \$1799 + tax (Free 전해조 청소 및 A/S 3년)

BTM 501 T 는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 심플한 디자인과 LCD 창의 최신 디스플레이
- 손잡이의 푸른색 무드등
- 이온수기 전체 high glossy 코팅처리
- 7장의 99.99% 백금 티타늄 전해조
- 대한민국 퍼스퍼 브랜드 상.
- FDA, KFDA 인증

렌트보다 더 싼 12개월 무이자 할부, 24개월 할부 ● 이 모든 행사는 Pro Bion에서만 진행됩니다.

*한국에는 수십개의 이온수기 회사가 있습니다. 그중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10년 동안 시장 점유율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바이온텍 이온수기는 28년 동안 한우물만 파며 100%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되고 미국, 유럽, 중국, 이온수기의 중추국인 일본에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온텍만의 특징점

1. 유량에 관계없이 정정 pH 자동 맞춤 기능
2. 어린이,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 기능 음성안내
3. 모든 작동 기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신형 LCD액정 화면
4. 99.99% 백금 티타늄 전극판 7장을 사용한 업계 최고의 전해조 시스템
5. RSC 반도체 회로에 의한 자가 진단 시스템
6. 저수조가 따로 없어 위생적이고 주방에 어울리는 컴팩트한 디자인
7. 자동세정, 자동배수 및 필터 교체 시기 알림 기능

문의전화 714.736.0802
8362 Artesia Blvd #C Buena Park, CA 90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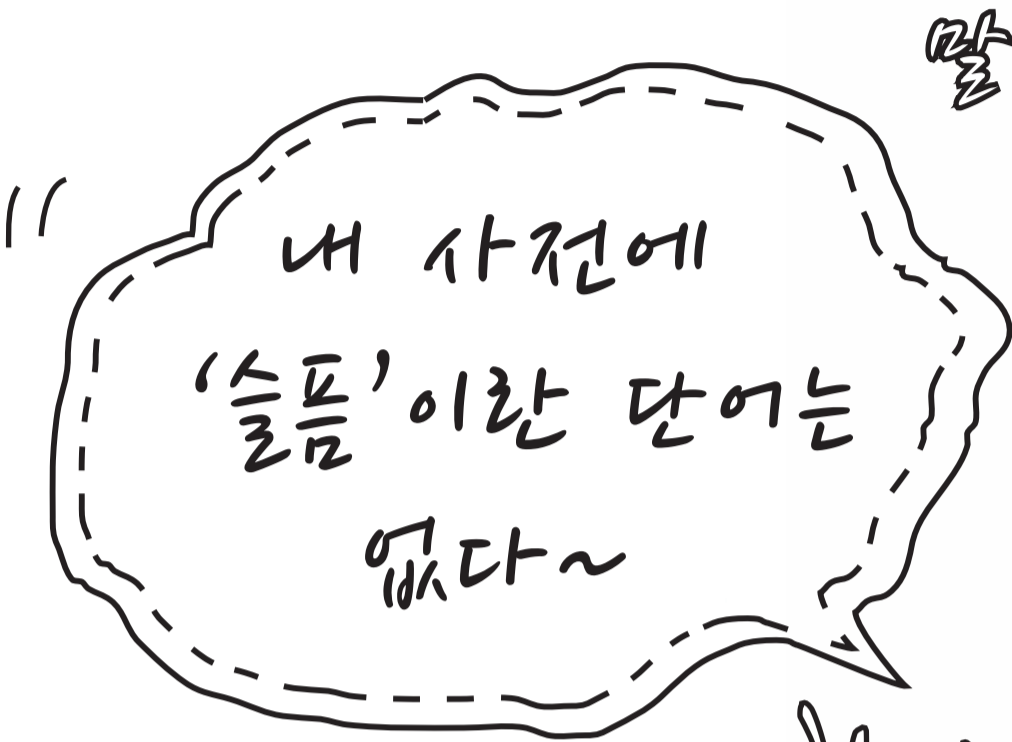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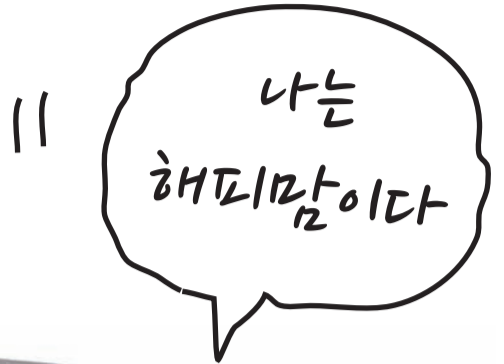
H마트 리빙헬스
562.972.4548

대리점모집 개인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

info@probioninc.com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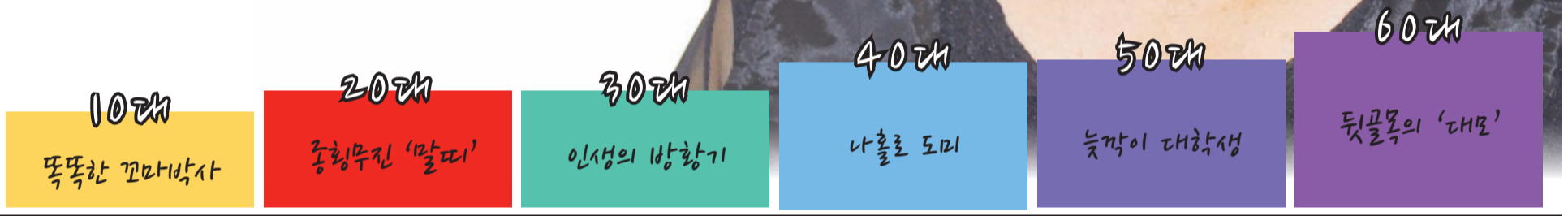
도넛에 철학이 있다 유쾌한 억척女 나주옥 목사의 24시



말피!

하 하 하

I can do!



“하하하~” “호호호!” 함박웃음 가득 띤 그의 얼굴엔 그림자가 없다. 천성이 낙천스럽다. 명랑하고, 쾌활하기까지 하다.

LA 다운타운에서 17년째 노숙자들과 동고동락해 온 그녀를 가리켜, 타인종들은 ‘도넛 레이디’라고 말한다. 어딜 가도 밝고 시원시원하면서, 상큼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녀 주위에 사람들이 항상 모여든다. 공자가 말한 ‘중심(從心)’ 일흔을 두 해 앞둔 나주옥 목사(68)의 캐릭터다.

그의 하루는 길다.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어둠의 길을 더듬으며 도넛 가게로 향한다. 집도 없이 해매이는 배고픈 노숙자들을 먹이기 위해서다. 크리스피 도넛가게 두 군데와 스타벅스 매장에 들러 달콤한 도넛을 수거해 6가와 타운(Towne) 길목에서 오고 가는 노숙자 250~400여명에게 나눠 준다. 도넛을 받아가는 노숙자들 중엔 흑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매일 정한 시각, 정해진 장소에 이들 앞에 나타나 먹을 것을 전해 주는 그녀는 ‘마마’로 통한다. 모르긴 몰라도 도넛을 일일이 봉지에 담아 건네주는 배식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터. 친절한 손가락이 많아도 한참 닳아있을 법 하다. 그래서일까. 실제로 하얀 봉대가 그의 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날이 더러 있다.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없어 크고 작은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와도 그녀는 결코 울지 않는다. 내 사진에 ‘슬픔’이란 단어는 없다는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때론 입술이 탈 정도로 속상할 때도 있지. 그래도 눈물을 흘리거나 하진 않아. 하나님도 징징거리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 그런 그녀에게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승화시켜 낸다. 스스로 위로하며 사는 법을 터득했기에 아무리 힘든 일이 밀려와도, 그저 웃어 넘기고 만다.

서울 마포초등학교 출신의 나 목사에게 어려서부터 사경을 이어온 오랜 벼들이 있다. 일흔을 코앞에 둔 그 벼들은 하나같이 나 목사를 부러워 한다.

“주옥아. 넌. 좋겠다.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을 업(業)으로 삼고 있으니 우리처럼 따로 건강 챙기지 않아도 절로 건강할 거 같애. 얼마나 좋니... 부럽다. 예!”

다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빠지고 나온 흰 눈을 감추느라 염색은 기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흔한 물도 들이지 않고 천연을 고수한다. 화장품도 웬만해선 안 바른다. 아니, 바를 시간이 없다. 일어나자마자 눈곱 땀 겨름도 없이 뽀뽀 달려야 하니 ‘미(美)’를 챙길 여력이 없다. “그래도 사람들이 저러려 피부가 좋다고들 해. 하긴, 미국(美國)에 사니 미인(美人)이지. 호호호.”

똑 부러질 ‘똑’ 10대 별명은 ‘꼬마 박사’

어려서부터 그는 똑똑한 여학생이었다. 초등학교 때 전교 부회장이 됐다. 똑 부러질 ‘똑’ 소리가 났으니, 마포에선 ‘나주옥’이란 이름 석자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유명세를 탔었다.

1950년대, 아직 TV가 개국되기 전의 일이다.

KBS 라디오 쿼즈 프로그램 ‘피돌이 문답’에 자주 출연했던 소녀 나주옥이 스무고개 문답을 일사천리로 풀어내니, 오죽하면 “답 보고 나왔냐”고 할 정도였다고. 그래서 10대 댄 ‘꼬마 박사’란 별명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답임을 맡으셨던 송소년(104·여) 선생님은 유독 그를 아꼈다. “아이고, 우리 꼬마 박사 왔구나~”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분은 “주옥이는 나중에 커서 박사, 의사, 변호사처럼 끝에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 꼭 되라”고 하셨다. 결국 선생님이 바라시던 ‘사’자 붙은 ‘목사’가 됐다. “가장 영양가(?) 없는 목사를 하고 있잖아. 하하하” 하고 그는 웃지만, 어찌 됐건 ‘사’자 붙은 사람이 된 건 맞다. 목사 됐다는 소식에 백발의 선생님은 “아주 잘 했다”며 기뻐하셨다.

커리어우먼 20대 별명은 ‘말피’ ‘독일제 컴퓨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 들었다. ‘말표 고무신’ 회사였다. 대한민국 경제가 한창 성장할 때였으니, ‘말표’ 정글부츠나 오버부츠, 군화 등도 불티 나게 수출되던 때였다. 외형 18억 인 회사의 ‘돈 줄’ 담당이었으니, 소공동·명동 주변 은행을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 다녔다.

당시 붙은 별명이 ‘말피’다. 말피도 아닌데 말이 다. ‘독일제 컴퓨터’란 별명도 있다. 그만큼 정확하고, 한 번 입력된 정보는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고 해서 붙여졌다.

인생의 방향기 30대 동두천 친구 덕에 영어 교사

중형무진으로 활약하다 1972년 다니던 회사를 자의반 타의반 그만뒀다. 당시만 해도 나이 많은 여성을 오래 고용하는 회사가 드물던 시절이다. 그 후로 여기저기 직장을 찾아 다녔지만 어디 마땅한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동두천에 친구 만나러 갔다 우연히 그곳 미군부대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 일하게 됐다. 거기서 꽃꽂이를 비롯해 성가대 지휘도 하고, 군인 가족을 위한 교육 코디네이터로 일했다. 물론 처음엔 파트타임이었지만, 점차 인정을 받아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됐다.

향학열에 불탄 40대 고교 졸업 17년 만에 대학 가방꾼 메다

1980년 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7년 만에 다시 가방꾼을 됐다. 불혹의 나이 40에 늦각이 대학생이 된 것. 서울에 분교를 둔 메트로폴리탄칼리지(LA시티 칼리지) 회계학과에 입학한 지 3년만에 보란 듯이 졸업장을 따냈다. 동시에 교회 내 펀드 테크니션(Fund Technician)으로 2년간 재정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안양 YWCA에서 직장인·아동들을 대상으로 생활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미국 오기 하

루 전날까지 꼬박 2년간. 그리고 그의 나이 정확히 46세 때 태평양을 건너 도미했다.

‘혈혈단신’ 도미 50대 공부에 ‘중독’ 죽으면 죽으리라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미국 땅에 여자 홀로 건너 오다니... 역시 나주옥답다. 나이도 많은 데다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요, 실력이 쩡쨍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배짱이 있어 혈혈단신 도미한 걸까. 돌이켜 보면 ‘나주옥’이니까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다 싶다. 그의 영어 이름은 에스더(Esther)다. 친인척 하나 없는 외지에 홀로 정착하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를 수도 없이 외쳐 왔던 게 아닐까 싶다. 처음엔 I-20 비자도 내주고 비교적 입학하기 쉬운 학교에서 공부하다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에 들어가 공부했다.

그러나, 소원하던 공부도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았다. 처음엔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 측에서 그동안 안 학위가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입학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정식 학생이 아닌, ‘Unclassified Student’ 자격으로 등록해 4년간 공부했다. 한 두 과목씩 수강해 시작한 공부에 갈수록 가속도가 붙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장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날라 왔다. 교수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세 과목만 B이 상이면 졸업시켜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마침 세 과목을 수강하고 있던 그는 더욱 향학열에 불타 올라 결국 세 과목 다 A를 받아냈다.

그랬더니 또 한 통 편지가 날라 왔다. 정식 학생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필요하면 장학금까지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졸업에 필요한 72학점을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비 걱정도 없으니 원 없이 한 번 해 보자는 마음에 120학점까지 들었다.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서 ‘중독’될 정도였어. 덕분에 당시 유명한 한국인 교수님들의 수업은 죄다 들었지. 오죽하면, 대학 내 교수님들 사이에선 날 모르는 분이 없었어.”

이렇게 신학공부 삼매경에 빠져 8년간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졸업할 당시 그의 나이 53세.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해 온 60대 양로병원·노숙자 사역

신학교 졸업 후 본격적으로 양로병원 봉사활동과 노숙자 사역에 뛰어 들었다. 1995년 신학생 시절부터 자원봉사자로 나서기 시작해 여지껏 LA 다운타운에서 ‘파주기 사역’을 즐기차게 고집해 왔다. 그러다 1999년부터 10년간은 오갈데 없는 아이들을 하나둘씩 데려다 키우는 위탁양육사역도 했다. 그의 손을 거쳐 어른이 된 아이들만 20여명 남짓 된다.

그간 ‘정처없는 거리의 영혼’들을 챙기느라 역적을 떨며 바쁘게 살아온 탓인지, 인연이 없었던 탓인지 그녀는 아직도 싱글이다. “결혼은 왜 안 했냐”는 질문에, 그녀는 쿄웃음치며 이렇게 말한다.

“결혼? 해서 뭘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

한 선택 중 하나가 바로, 결혼 안 한 거라구.”

그렇다. 결혼을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누군가의 아내, 엄마로 살기보다 이름을 지닌 한 개체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기에. 그녀는 지금도 자신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당당히 말한다. “남편이 있으면 아무래도 제약이 따르겠지. 늙으면 병 수발도 해야 하고 자식을 뒷바라지 해야 하니... 그러니, 결혼 안 하길 잘 했지. 외로울 틈? 없어. 전혀!”

그가 독신을 고집하는 데엔 어머니의 영향도 크다. 딸 다섯을 낳은 어머니는 평소 김활란 박사나 임영신 여사처럼 뜻있고 보람찬 인생을 사는 자식이 하나쯤 나와 주길 바랬다. 남편이나 자식을 뒷바라지나 하는 평범한 인생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뜻을 펼치는 그런 인생 말이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그 꿈을 이뤄준 셈이기도 하다.

삶을 이끌어온 좌우명은 “내가 처한 어디서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다. 비겁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비열하지 않게 사는 것과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자’는 게 그 삶의 지침이다. 도미하면서 ‘맛과 낭만, 그리고 보람을 챙기리라’ 다짐을 했건만, 맛과 낭만은 돈과 시간이 부족하니 요원하기만 하다. 허나, 오직 보람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살 수 있으니 그의 24시간은 알차다 알차다.

“내가 배운 신학은 ‘한 손에는 신문물, 한 손에는 성경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사회를 외면한 신학이 아닌, 사회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행동하는 신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교회에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들을 위해 고통을 나누며, 그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행위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처럼, 민중을 외면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배운 바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남들이 자주 묻곤 합니다. ‘왜 하고 많은 일 중에 뉘새나고 지저분한 노숙자들을 위한 일을 하느냐고 말합니다. 저는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그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지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놓을 수가 없노라’고. 남들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한다며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좋은 일이라 말하기보다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 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뿐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 가족이 많습니까. 자식도 있고 자매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까. 돕는 수호천사도 많습니까. 아름다운 이웃도 있습니까. 나를 ‘이모’라 불러주는 아이들이 있고 ‘해피 맘’이라고 불러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LA 뒷골목의 대모) 정한나 기자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살짝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팔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자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베니스 한의원

특별진료과목 [감기/비염/위장병] 예방 및 근본치료 원칙

- 각종 위장병, 만성변비, 방광염, 잦은소변
- 중풍, 반신마비, 대상포진, 안면마비, 오십견
- 신장결석, 담결석 (전통비방특수한약)

침/전침/화침/불부황/고약/보약/공진단/소화환

유학생 여행차 교통사고 건강보험상당 213.271.7002
2270 W. Venice Blvd LA, CA, 90006
웹사이트 베니스 사거리 테크노 링크 주차장 WWW.LAHERB.COM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사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선풍설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선풍설 A/C 냉장,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이민국 및 법원 서류 일체

(최고 저렴한 가격)

- ▶ 종교비자 (R-1 & I-360)전문
- ▶ 가족 및 결혼 영주권, 제반 서류 일체
- ▶ 비영리단체 (교회, 선교단체)

한미 기독교 봉사회 Tel. (213) 305-2344
1300 W. Olympic Blvd., #202, LA, CA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작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 트랜스미션
- ✓ 타이밍벨트
- ✓ 브레이크
- ✓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세계일류 상품 인증 획득 미주총판 www.Caidrox.com

2011 大賞

*Black Box(차량용 영상장치)란?
주행이나 주차시 예기치 않은 모든 사건 사고등을 영상으로 속도, 위치, 시간, 음성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위기의 순간 유일한 목격자
Black Box LA, INC. T.562-495-9987

Kate Cho 헤어디자이너 케이트 조

Man's cut \$10.00 Women's cut \$20.00

영양염, 펄빙염, 아재염 \$50.00 하이라이트, 코팅, 염색 \$50.00

매직 스트레이트 펄 \$80.00

반드시 꼭 예약 필수!! 213.505.5756
433 S. Western #101, Los Angeles, CA, 90004

sasafschool.blogspot.com

말고 말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APPLE TREE ACADEMY

Pick up, 건강한 식안과 함께 학교 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비베큐용)
- 각종 Tea (커피, 통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그레이스 최 최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방울먹으면서도 식욕 계속 있습니다.

내장비만 & 다이어트

금연클리닉 스페셜 \$200 (금을 때까지 치료)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 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홈 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본국 모범 청소년 초청 행사 성황리에

남가주호남향우회 주최 비전 트립

정인기 회장 “시야 넓혀 국가 지도자로 성장하길”



비전 트립에 참가한 호남지역 모범 청소년들이 남가주호남향우회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했다.

남가주호남향우회는 지난 20일 본국의 모범 학생들을 미주로 초청해 비전 트립을 시작했다. 호남향우회는 매년 본국의 호남지역 중고등학생 수십 명을 미주로 초청해 미국을 경험하며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올해 LA로 도착한 10여명의 청소년과 인솔교사들은 20일 올림픽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해 한인회장 주최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21일 LA 시내를 관광하고 22일에는 팜스프링스 방문, 23일 그랜드캐년 관광, 24일 라스베가스, 25일 바스토헤 아올렛 방문, 환영만찬 일정을 소화했으며, 26일 샌디에고 관광을 마친 후 27일 멕시코시티로 출국하는 것이 이번 비전 트립의 일정이었다. 이번 방문에는 광주광역시에서 4명, 전라북도에서 4명, 전라남도에서 4명의 청소년이 방문했다.

정인기 향우회장은 “호남 청소년들이 짧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국가의 지도자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무한 한인회장이 연 환영만찬에는 티나 니에토 올림픽경찰서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호남향우회 측은 청소년 방문에 큰 도움을 준 각계 인사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주연 기자



아이토크비비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장훈 씨(우)

기부천사 가수 김장훈 아이토크비비 홍보대사에 위촉

미주 한인 인터넷 전화의 대명사 아이토크비비가 한국에서 기부천사로 널리 알려진 가수 김장훈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지난 7월 17일 LA 소재 아이토크비비 직영점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나와 같다면,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등의 히트곡으로 유명한 가수인 동시에, 독도지킴이, 위안부 문제, 중증 아동 전문병원 건립 사업에 참여하는 등, 소외되고 그늘진 사회의 각분야를 망라해 총 110억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해 ‘기부천사’라는 별명이 붙은 김장훈 씨가 이번 아이토크비비 홍보대사로 위촉됨으로써, 그동안 그를 통해 한국 내에서 퍼졌던 잔잔하고 따뜻한 감동의 물결이 태평양 건너 200만 미주 한인사회로도 넓게 스며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토크비비 다이렉트 김 상무는 “아이토크비비는 이전부터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서 기업 마케팅 활동 이외에도 다방면에 걸쳐 후원 및 봉사활동을 벌여 왔는데, 기부천사 김장훈 씨가 아이토크비비 홍보대사로 위촉됨으로써

한인커뮤니티 내에 아이토크비비의 이미지가 향상됨은 물론이고, 그동안 아이토크비비가 계획해 왔던 다방면의 활동을 미주 내에서 더욱 활발히 펼쳐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장훈 씨는 아이토크비비의 홍보대사 활동과 관련해, “그동안 미주 한인사회에서 활발한 마케팅을 펼쳐오고 있는 아이토크비비와 함께 미주 내에서 좋은 동반자로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지금까지는 국내 활동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이번 아이토크비비 홍보대사 수락을 계기로 200만명 이상의 많은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미주에서도 폭넓은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홍보대사 수락의 변을 밝혔다.

아이토크비비는 기부천사 김장훈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을 기념해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글로벌플러스 플랜에 가입하는 이들에게 34.99불의 기존 요금을 3개월간 9.99불로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한주연 기자

영어회화는 공부 아닌 훈련이다!



〈베스트영어훈련원 최성규 원장 칼럼〉
“3년 해도 안돼? 3개월이면 효과 본다”

온전히 내 나라처럼 여겨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언어문제 때문일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자녀들과 미국에서 살 것이라면 영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늦었지만 다들스러운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영어공부를 하고도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활영어 교육전문가들이 찾았다는 것이다.

“영어회화는 학문이 아니고 말하는 기능이다”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영어를 학문으로만 공부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영어에 대한 많은 지식은 얻겠지만 정작 말문이 트이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현실이 잘 말해 주는 사실이다. 영어공부를 오랫동안 해 왔다고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은 영어공부에 흥미를 잃게 한 이유를 찾으면 된다.

공부는 진전이 없으면 금방 흥미를 잃는다. 하지만 말하기 연습(훈련)을 하면 흥미를 갖게 된다. 더구나 생활영어는 범

위가 그리 넓지 않아서 단기간의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

오래 전부터 영어회화는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곳이 있다. 누구나 훈련만 하면 가능하지만, 집에서 혼자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훈련한다.

오랫동안 영어를 읽고 지낸 분들을 위해 회화에 필요한 문장구조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미국식 발음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영어 초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훈련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한국식 영어에 있어서는 감자지만 회화가 약해 답답해 하다가 3개월 훈련 후 흡족해 하게 되는 곳이다.

LA : 213-239-4815
주소 : 3215 W. 6th st. #101 Los Angeles, CA90020
플러튼 : 213-507-0691
주소 : 1309 W. Valencia Dr. Fullerton, CA92833

베스트영어훈련원 최성규 원장

미국에 살고 있어도 영어회화를 잘하기는 쉽지 않다. 답답하지만 사실이다. 누구보다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해 왔는데도 여전히 말이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에 있다면 영어를 못하는 것이 심각하게 문제 되지 않겠지만 미국에 사는 우리는 다르다. 영어 때문에 겪는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에 수십 년 살았고 자녀들도 여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래도 미국이

나눔선교회 마약중독 예방교육 열린다

마약, 도박, 알코올, 청소년 탈선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재활 기관인 나눔선교회에서 오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목, 금, 토) 마약 퇴치 및 예방 캠페인과 약물 남용 및 중독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 세미나는 마리화나 자판기 판매가 허용될 만큼 비교적 쉽게 마약이 통용되며 학생, 주부를 비롯한 모든 계층에게까지 마약이 공급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현 실태를 알려 약물 남용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약 퇴치와 예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약물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 중독 없는 건강한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열린다.

이 세미나에서는 약물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약물 중독 대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나눔 선교회 본관에서 3일간 실시한다.

문의 : 1927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90006, 213-389-9912

한주연 기자

아이토크비비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중암일보/인터넷 웹사이트(www.ikomedi.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3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힘내라 코리아!

아이토크비비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금메달의 기쁨을 아이토크비비와 함께!

행사기간: 2012년 7월 17일 ~ 2012년 7월 31일 까지

응원 이벤트 하나:

행사 기간 중 가입하시는 고객은 **글로벌 플러스 플랜** **할인**

~~\$34.99/월~~

\$9.99/월

첫 3개월간, 이후 \$34.99/월

- 미국, 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통화
-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 집전화 요금 최대 60% 절약

응원 이벤트 둘:**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딸때마다 \$1 크레딧이 팡팡!

15개면 \$15 크레딧!

마이코리아남버***

한국 070 번호 제공

무료 부가서비스

아이토크글로벌

전화카드가 필요없어!

휴대전화에서도 국제전화 500분 가능

[30일 환불 보장]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 할인 이벤트 - 프로모션 기간 첫 3개월을 포함해 총 15개월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고객에 한합니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할인 받으신 요금액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응원 이벤트는 행사기간 내 15개월 계약 글로벌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고객에 한하며, 크레딧은 9월 30일 이후 적립됩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예식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남버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에 연액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해지시 이미 납부한 월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해외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 을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인터넷과 관련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6시 ~ 저녁 10시 30분 (P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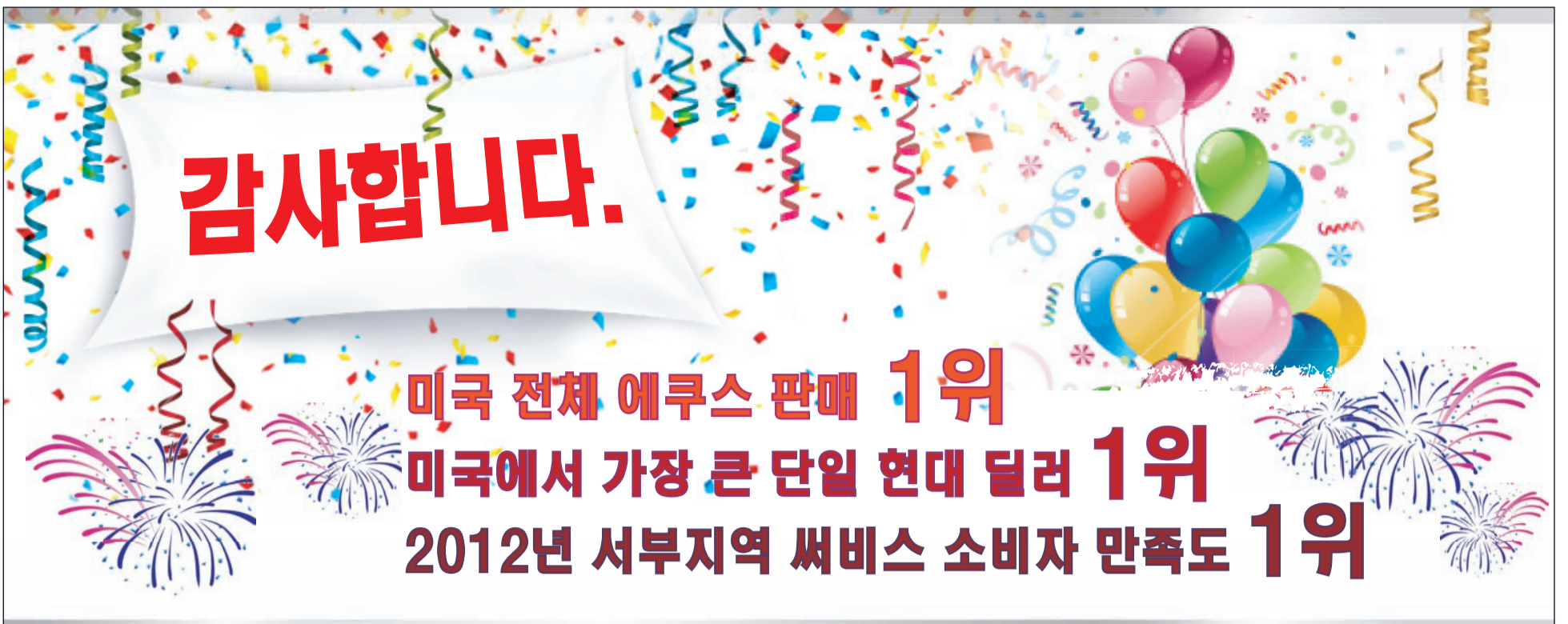
지금 Facebook.com/iTalkBBone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공인 가입센터 모집

한인타운 내 매장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703.348.7544**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돈 한푼 없이 첫달지 할부금도 안내고 디파짓없이 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차와 선물, 혜택을 그냥 드립니다. **틈박 가져 가세요.**

7월 독립 기념일 특별 세일

\$0 Down Payment | **\$0** First Payment | **\$0** Security Deposit



2012 NEW GENESIS 3.8L

MSRP \$35,260 (STK:193210)
RESIDUAL \$16,572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REBATE

\$357 + TAX



2012 NEW EQUUS

(STK:045620)
MSRP \$59,650
RESIDUAL \$25,650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REBATE

\$635 + TAX

2013 NEW SONATA GLS

(STK:511730)
MSRP \$22,010
RESIDUAL \$12,105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VALUED OWNER, ECO TRADE

\$212 + TAX



7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행사기간 2012년 7월1일~31일)

1.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2. 평생 카워시



7월 한달간 무이자(0%)에 \$1000을 더 드립니다.

*2012년 소나타,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한함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Customer Care
제니 김
310.749.7599



Sales
매튜 김
714.797.3571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